

[제01강 학생용 빈칸교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

[부제] 참된 지혜의 두 축 —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발견하는 인간의 실존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장 집중 강독 워크북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 / 소그룹: ____ / 일시: 2026년 ____월 ____일

I. 마음 열기 및 학습 목표

-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의 상호 연관성을 깨닫는다.
- 칼빈의 '태양빛 비유'를 통해 내 안의 위선과 상대적 의(義)의 착각을 발견한다.
-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한다.

II. 강의 안내 노트 및 핵심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도입] 거울 앞에 선 현대인과 칼빈의 선언

- 고대 그리스 델피 신전의 격언이나 현대 심리학은 끊임없이 "너 [①] 을 알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자신만을 들여다볼 때 필연적으로 교만한 자기도취나 절망적 허무에 빠집니다.
- 칼빈의 첫 선언 (1.1.1):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곧 참되고 건전한 지혜의 총계는 거의 전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②] 과 [③] 이 그것이다.”

2. [제1대지] 얽혀 있는 두 지혜: 의존성과 영적 빈곤 (1.1.1)

- 피조물의 의존성: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정직하게 성찰하면, 이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빗방울처럼 떨어진 [④] 임을 깨닫게 됩니다.

•

[⑤] 이 됩니다.

- ⚠️ 주의할 오해: '내가 내 비참함을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생각은 인본주의적 착각입니다. 인간의 영적 결핍 자각조차 이미 성령의 [⑥] 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3. [제2대지] 영적 착각의 해체: 태양빛 비유와 모세의 옆드림 (1.1.2)

-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⑦] 의 성향이 있어서, 남과 비교하여 조금 덜 악하면 자신이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 칼빈의 불후의 비유:

“대낮에 땅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시력이 대단히 예리한 것 같지만, 정오의 [⑧] 을 마주하는 순간 그 시력은 마비되고 무덤의 극치에 이른다. 마치 오로지 검은 물체만 본 사람은 하얀 얼룩이나 거무스레한 반점만 보아도 그것을 완전한 [⑨] 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이다!”

- 🎨 [명화 관찰 1] 도메니키노, 『불타는 떨기나무 앞의 모세』 (1610,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 평생 광야에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을 모세가,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꽃 앞에서 [⑩] 을 벗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옆드립니다.

4. [제3대지] 거룩한 압도와 티끌의 자각: 아브라함과 성도들 (1.1.3)

- 성경 속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마다 예외 없이 거룩한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 마노아 부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⑪] !” (삿 13:22)
- 선지자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⑫]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 (사 6:5)
- 아브라함: “내가 비록 [⑬] 이나 [⑭] 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창 18:27)
- 🎨 [명화 관찰 2] 렘브란트, 『천사들을 대접하는 아브라함』 (1656,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 열국의 아비라 불리던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자신을 무가치한 티끌로 고백했습니다.

5. [비교 분석] 세속적 자존감 vs 성경적 자기인식

구분	세상 심리학의 자존감 (Self-Esteem)	성경적 자기인식 (Christian Identity)
출발점	“너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파산한 죄인이다”
평가 기준	타인과의 도덕적·사회적 비교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율법

구분	세상 심리학의 자존감 (Self-Esteem)	성경적 자기인식 (Christian Identity)
결과	작은 비난이나 위기에도 무너지는 모래성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영원한 존귀함

Ⅲ. 소그룹 나눔 및 개인 묵상 기록장 (Discussion & Journal)

[질문 1: 마음 열기]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 중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꽤 선하고 정직하지"라고 안도했다가 결정적인 갈등이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하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나의 나눔 메모:

[질문 2: 말씀과 명화 깊이 묵상하기]

도메니키노의 명화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빠지게 되는 '치명적인 영적 착각'은 무엇입니까? * 나의 나눔 메모:

[질문 3: 복음적 자기인식 정립]

세상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자존감'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파산 선고 및 십자가 은혜를 통한 존귀함 회복'은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까? * 나의 나눔 메모:

[질문 4: 한 주간의 결단과 기도]

이번 한 주간, 내 의와 선함을 증명하려던 헛된 교만의 껍질을 벗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구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구체적인 영적 훈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 나의 결단:

Ⅳ. 이번 주 암송 성구 및 결단의 기도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창세기 18:27)

[마침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두운 기준 속에서 잿빛 도덕성을 가지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겼던 저의 위선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땅의 거울을 치우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에 불과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신 그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만을 평생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록: 빈칸 정답표 (Answer Key)]

- ① 자신 | ② 하나님에 대한 지식 | ③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 ④ 하나님의 은혜 | ⑤ 거룩한 채찍 | ⑥ 선행적 은혜
- ⑦ 외식 / 위선 | ⑧ 태양 | ⑨ 흰색 / 순백 | ⑩ 신
- ⑪ 죽으리로다 | ⑫ 부정한 | ⑬ 티끌 | ⑭ 재

[제2강 학생용 빈칸교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2장 집중 훈련 워크북

성명: ____ | 소그룹: _____ | 일시: 2026. __. 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빈칸 채우기 (Guided Notes)

1. 차가운 사변을 넘어선 실존적 만남

고대 철학자들과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신의 본질에 대해 [①] 인 사색을 즐겼으나, 칼빈은 이러한 태도가 "한가한 장난"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cognitio Dei*)의 목적은 구경꾼의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②] 하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 칼빈 신학의 최고봉: 경건(Pietas)

칼빈은 참된 신앙의 상태인 '경건(Pietas)'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바 하나님에 대한 [③] 과 그를 향한 [④] 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이 오직 [⑤] 덕분임을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3. 에피쿠로스주의와 실천적 무신론의 타파

고대 [⑥] 학파는 신이 저 높은 곳에서 한가롭게 쾌락을 즐길 뿐 인간 세상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주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의 태도는 [⑦] 무신론에 불과합니다.

다윗 왕이 왕관을 내려놓고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듯이, 성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⑧] 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4. 지옥의 공포를 넘어선 자녀의 순종

로 혹시 [⑨] 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만으로도 끔찍스러워 견딜 수 없는 심정일 것이다.”

채찍이 두려워 억지로 복종하는 것은 [⑩] 의 두려움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거룩을 따르는 것은 참된 자녀의 경외입니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기들의 모든 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려 하지 않는 법이다. 자기들의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실하게 드리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 1.2.1)

묵상 질문: 내 삶에서 아직도 "내 노력과 실력으로 이루었다"고 은연중에 자랑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 나의 묵상: _____

Ⅲ. 세속 사상 vs 개혁신학 비교 분석표

구분	에피쿠로스주의 (세속 이신론)	바리새적 율법주의	칼빈의 성경적 경건 (Pietas)
하나님관	인간사에 무관심한 신	무서운 채찍을 든 심판자	모든 선을 베푸시는 은혜의 아버지
순종의 동기	무관심 (자신의 쾌락 추구)	형벌에 대한 공포 (노예의 두려움)	은혜에 빛진 사랑과 거룩한 경외

구분	에피쿠로스주의 (세속 이신론)	바리새적 율법주의	칼빈의 성경적 경건 (Pietas)
예배의 성격	종교적 허무주의	화려한 외식과 종교 행위	상한 심령과 전인격적 삶의 순종

IV. 소그룹 나눔 및 개인 저널

Q1. 내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 속에 '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노예의 마음'은 없었습니까?

👉 나의 나눔: _____

Q2.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고백처럼, 이번 주간 순수한 사랑으로 실천할 순종은 무엇입니까?

👉 나의 나눔: _____

V. 이번 주 암송 성구 및 결단 기도

암송 성구: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10)

나의 결단 기도: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지식에 머물지 않고, 매일 아침 내 모든 호흡이 주님 덕분임을 고백하는 참된 경건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 [자가 점검 정답표]: ① 사변적 / 추상적 ② 신뢰 (경외) ③ 두려움 (경외) ④ 사랑 ⑤ 하나님 ⑥ 에피쿠로스 ⑦ 실천적 ⑧ 절대 주권 (섭리) ⑨ 지옥 ⑩ 노예

[제3강 학생용 빈칸교재]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3장 집중 훈련 워크북

성명: ____ | 소그룹: ____ | 일시: 2026. 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빈칸 채우기 (Guided Notes)

1. 영혼에 새겨진 신인식의 감각(Sensus Divinitatis)

칼빈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무지를 핑계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의 마음에 [①]에 대한 어떤 지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키케로의 증언처럼, 아무리 야만적인 민족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신에 대한 관념이 없는 종족은 없으며, 심지어 돌과 나무 앞에 절하는 [②]조차도 신의식이 얼마나 인간 골수 깊이 새겨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인간 마음속에 끊임없이 신을 찾도록 싹터 오르는 성향을 칼빈은 [③]의 씨앗(*Semen Religionis*)이라고 불렀습니다.

2. 종교 조작설과 세속 무신론의 파산

종교란 영악한 정치가들이 무지한 대중을 속박하기 위해 교묘하게 만든 [④]이라는 세속의 주장은 철저한 허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신에 대한 확고한 [⑤]이 먼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면, 그 어떤 정치적 속임수도 결코 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폭군 [⑥] 황제는 평소에는 신을 모독하고 조롱했으나,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 침대 밑으로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신을 대담하게 멸시하던 자가 [⑦]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레 26:36), 무신론이 한갓 거짓된 허세에 불과함을 증명합니다.

3. 지워지지 않는 양심과 인간의 창조 목적

서 그들을 끊임없이 갇아먹습니다.

플루타르크의 통찰처럼, 만약 삶에서 종교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⑨] 보다 나을 게 없고 훨씬 더 비참한 처지에 빠집니다.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참으로 월등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 유일한 표지는 오직 하나님을 [⑩] 하는 것뿐입니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성적인 본능에 의하여 신에 대한 지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이다. 아무도 무지를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신격에 대한 어떤 지각을 모든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각에 대한 기억을 늘 새롭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물방울들을 끊임없이 떨어뜨려 주신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또한 그분이 자기들의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바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죄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 1.3.1)

묵상 질문: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겉으로는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 나의 묵상: _____

Ⅲ. 세속 무신론 vs 칼빈의 개혁주의 인식론 비교표

구분	세속 유물론 / 신무신론	고대 종교 조작설	칼빈의 성경적 인식론
종교의 기원	진화의 부산물, 뇌의 착각	지배자들이 날조한 통제 수단	하나님이 모태에서 심으신 신인식의 감각

구분	세속 유물론 / 신무신론	고대 종교 조작설	칼빈의 성경적 인식론
무신론의 본질	합리적 이성과 과학의 승리	권력자들의 정치적 선동	심판을 회피하려는 양심의 영적 도피
인간의 존엄성	원자와 물질의 우연한 결합체	속기 쉬운 어리석은 대중	창조주를 예배하도록 지음 받은 하나님의 형상

Ⅳ. 소그룹 나눔 및 개인 저널

Q1.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내면의 양심이 나를 찔렀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 나의 나눔: _____

Q2. "인간을 짐승보다 존귀하게 만드는 유일한 표지는 예배이다"라는 선언 앞에서, 내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 나의 나눔: _____

Ⅴ. 이번 주 암송 성구 및 결단 기도

암송 성구: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20)

나의 결단 기도: "창조주 하나님, 내 영혼의 골수에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새겨주셔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사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 [자가 점검 정답표]: ① 신격 (하나님) ② 우상 숭배 ③ 종교 ④ 발명품 (조작물) ⑤ 신념 (믿음) ⑥ 칼리굴라 ⑦ 나뭇잎 ⑧ 양심 ⑨ 짐승 ⑩ 예배

[제04강 학생용 빈칸교재] 신지식의 왜곡과 미신·우상론

[부제] 우상 공장이 된 인간의 마음 — 왜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내 입맛대로 신을 만드는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 제1권 제4장 |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명: ____ | 소그룹: _____ | 일시: 2026. 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사람의 무지와 미신 (1.4.1)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으나, 그것을 마음으로 기리는 사람은 백 사람 중에 [①] 사람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미신에 휩쓸리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거의 언제나 헛된 [②] 과 완고함이 뒤섞여 있는 죄악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자기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아야 마땅한데도, 자기들의 육신적인 [③] 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시하시는 계시대로 깨닫지 않고, 인간이 추측하는 대로 상상하여 꾸며낸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꿈꾸어 지어낸 [④] 에 불과합니다.

2. 고의적 무신론과 마음의 우상 공장 (1.4.2~3)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⑤] 이 없다 하는도다”(시 14:1)라고 선언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⑥] 를 빼앗고 하나님을 하늘 속에 가두어 마음대로 죄를 짓기 위함입니다.

존 칼빈의 가장 유명한 명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구적인 [⑦] 이다(*Humana mens perpetua est idolorum fabrica*).”

락탄티우스의 통찰처럼, 하나님의 계시된 [⑧] 와 결합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순전할 수 없습니다.

3. 노예적 두려움과 참된 경건 (1.4.4)

지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혐오합니다.

참된 경건(*Pietas*)이 삶 전체의 순종을 드리는 것인 반면, 위선자들은 몇 가지 하찮은 [⑩] 으로 하나님을 매수하려 합니다.

Ⅱ. 사료 심층 강독 원전 박스 (Primary Source Reading)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거짓된 의식들을 세워놓는 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환상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사실, 자기들의 어리석은 욕심에 맞추어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꾸며놓은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감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질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일단 참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그를 저버리게 되면, 저주받은 우상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칼빈, 『기독교 강요』 1.4.3)

Ⅲ. 비교 대조표: 참된 경건 vs 우상 숭배적 미신

구분	참된 경건 (<i>Pietas</i>)	우상 숭배적 미신 (<i>Superstitio</i>)
신앙의 기초	성경 66권의 계시된 말씀	인간의 타락한 주관적 상상력
마음의 동기	은혜에 감사하는 자발적 사랑	심판이 두려워 떠는 노예적 공포(<i>Servilis Timor</i>)
예배의 양식	마음과 뜻을 다한 삶의 순종	몇 가지 하찮은 외적 종교 의식 준수

Ⅳ. 소그룹 나눔 및 묵상 기록장

Q1. 내 마음의 '우상 공장'에서 가장 자주 만들어지는 우상(돈, 성공, 인정, 자녀)은 무엇입니까?

👉 나의 묵상: _____

👉 나의 결단: _____

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마침 기도문

암송 구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25)

나의 기도: “오 주님, 내 안의 모든 헛된 우상을 부수어 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 안에서 주님만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 [자가 점검 정답표]

① 한 ② 교만 ③ 어리석음 ④ 환상(우상) ⑤ 하나님 ⑥ 섬리 ⑦ 공장(Fabrica) ⑧ 진리 ⑨ 심판 ⑩ 의식(행위)

[제05장 학생용 빈칸교재] 우주 창조와 섭리에 나타난 신지식

[부제] 피조 세계라는 찬란한 극장 — 우주의 웅장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눈뿔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 제1권 제5장 |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명: ____ | 소그룹: _____ | 일시: 2026. 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우주라는 찬란한 극장과 소우주 인간 (1.5.1~3)

칼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 상연되는 찬란한 [①] (Theatrum Gloriae Dei)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의 정교한 운행과 젖먹이 아이의 입술에 이르기까지,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②] 이 번쩍이지 않는 곳은 단 한 뼘도 없습니다.

고대 의학자 갈레노스는 인체의 정교한 조직을 관찰한 뒤 인체야말로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룩한 [③]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인간을 가리켜 [④] (Microcosmos)이라고 부른 것은, 인간 존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놀랍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유물론과 범신론의 오류 해체 (1.5.4~5)

우주가 원자들의 우연한 충돌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맹목적인 [⑤] 이나 운명에 던져버리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베르길리우스나 스토아철학처럼 "우주 만물 자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⑥] 은 창조주를 피조물 속에 가두어 혼동하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무한히 [⑦] 하여 계시는 주님이시며, 자연 만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3. 영적 맹목성과 자연 계시의 한계 (1.5.11~15)

마치 소경처럼 하나님을 더듬거립니다.

자연 계시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라고

[⑨] (Inexcusabilis)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롬 1:20).

그러므로 눈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⑩]이라는 말씀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II. 사료 심층 강독 원전 박스 (Primary Source Reading)

“하나님께서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지 않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온 우주 속에 자신의 영광의 표지들을 너무도 명백하고 똑똑하게 새겨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온 우주에 대낮처럼 번쩍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적인 맹목에 사로잡혀 대낮에 눈먼 사람처럼 하나님을 지나쳐 버린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칼빈, 『기독교 강요』 1.5.1, 11, 15)

III. 비교 대조표: 일반 계시 vs 특별 계시

구분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계시의 통로	온 우주 만물, 자연 질서, 양심, 역사	기록된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
수혜 대상	모든 시대 모든 인류 (보편적)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핵심 기능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증언, 핑계 박탈	영혼의 구원, 죄 사함, 거듭남과 성화
인간의 반응	영적 맹목성으로 인해 우상 숭배로 변질	성령의 조명으로 믿음과 회개에 이름

IV. 소그룹 나눔 및 묵상 기록장

👉 나의 묵상: _____

Q2. '자연만 봐도 힐링이 된다'는 시대 속에서, 내가 매일 '성경 말씀의 안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나의 결단: _____

Ⅶ.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아침 기도문

암송 구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20)

나의 기도: “오 주님, 온 우주에 충만한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 [자가 점검 정답표]

① 극장(Theatrum) ② 불꽃(증거) ③ 찬가(Hymn) ④ 소우주 ⑤ 우연 ⑥ 범신론(Pantheism) ⑦ 초월 ⑧ 맹목 (소경) ⑨ 핑계 ⑩ 성경(말씀)

[제06강 학생용 빈칸교재] 안내자와 교사로서의 성경

[부제] 흐릿한 눈을 밝히는 말씀의 안경 — 왜 자연 계시만으로는 부족하며 성경이 필요한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 제1권 제6장 |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명: ____ | 소그룹: _____ | 일시: 2026. 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성경이라는 거룩한 안경 (1.6.1)

눈이 흐린 사람에게 책을 내놓으면 읽지 못하지만, [①] (Specilla)의 도움을 받으면 또렷하게 읽을 수 있듯이 성경은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친히 자기의 거룩하신 [②] 을 여사 특별한 선물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막연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분명하고 [③] 하게 깨닫도록 인도합니다.

2. 기록된 말씀(Scriptura Scripta)의 은혜 (1.6.2)

인간의 마음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잊고 온갖 [④] 에 이끌리는 경향이 심합니다.

하늘의 교리가 사람의 오만함 때문에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공적인 [⑤] 으로 남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하여 거룩한 [⑥] 을 반포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온 시대를 넘어 보존하셨습니다.

3. 미로를 빠져나오는 진리의 실 (1.6.3~4)

말씀이라는 [⑦] (Thread)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인간의 지성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⑧] (Labyrinth)에 갇히게 됩니다.

칼빈의 유명한 격언: “말씀의 길을 따라 [⑨] 거리며 걷는 것이 차라리 그 길 바깥에서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것보다 낫다!”

다.

II. 사료 심층 강독 원전 박스 (Primary Source Reading)

“가령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에게 아무리 훌륭한 책을 내어놓는다 해도, 눈이 흐리기 때문에 두 단어도 연달아 읽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그 책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런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주며,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다!” (칼빈, 『기독교 강요』 1.6.1)

III. 비교 대조표: 인간의 사변 vs 기록된 성경 말씀

구분	인간의 이성적 사변	기록된 성경 말씀 (Holy Scripture)
신앙의 기초	주관적 느낌, 경험, 철학적 가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 정경
영적 상태	출구 없는 미로(Labyrinth) 속 방황	진리의 실(Thread)을 따라 걷는 안전한 길
지식의 성격	흐릿하고 왜곡된 혼란스런 지식	참 하나님을 또렷이 보여주는 안경(Specilla)
최종 결과	끝없는 의심과 영적 파산	영혼의 소성,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

IV. 소그룹 나눔 및 묵상 기록장

Q1. 내 인생의 어두운 미로 속에서 성경 말씀이 안경처럼 앞길을 밝혀주었던 은혜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 나의 묵상: _____

엇입니까?

👉 나의 결단: _____

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마침 기도문

암송 구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7)

나의 기도: “오 주님, 성경이라는 말씀의 안경을 쓰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 [자가 점검 정답표]

- ① 안경(Specilla) ② 입술 ③ 확실 ④ 오류 ⑤ 기록(문서) ⑥ 율법 ⑦ 실(Thread) ⑧ 미로(Labyrinth) ⑨ 절뚝
⑩ 소성(회복)

[제07장 학생용 빈칸교재]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성경의 권위

[부제] 교회의 도장이 아닌 성령의 인침 — 왜 성경은 인간의 논증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로 확신되는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 제1권 제7장 |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 성명: ____ | 소그룹: _____ | 일시: 2026. __. 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교권주의 비판: 교회가 성경의 어머니인가? (1.7.1-2)

-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성경의 신빙성이 전적으로 교회의 [①]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 아래 종속시켰습니다.
- 칼빈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20절을 제시하며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②] (터) 위에 세워진 건물임을 선언합니다.
- 건물이 기초를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건물을 지탱하듯, 성경이 교회를 낳은 [③] 이지 교회가 성경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2. 아우구스티누스의 참뜻과 이성적 변증의 한계 (1.7.3-4)

-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의 권위가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은 신앙의 궁극적 기초가 아니라 불신자를 진리로 이끄는 [④] 역할을 뜻합니다.
- 역사적 증거나 사본학적 일치성은 비방자들의 입을 막는 보조적 도구는 될 수 있으나, 영혼에 참된 신앙의 [⑤] 을 심지는 못합니다.
- 타락한 인간 이성의 논증에 기초한 확신은 더 교묘한 철학자의 [⑥] 앞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3. 성령의 내적 증거와 자증성 (1.7.4-5)

- 성경은 피조물의 법정에서 검증받는 책이 아니며, 스스로 신적 권위를 증명하는 [⑦] (Autopiston) 진리입니다.

- 로 100% 확신하게 됩니다.
- 빛이 스스로 빛임을 드러내고 단맛이 단맛을 증명하듯, 성경은 〔⑨〕의 조명을 받은 영혼에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신적 위엄으로 다가옵니다.
- 참된 신자는 성경을 대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⑩〕 그 자체로부터 흘러나온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Ⅱ. 사료 심층 강독 원전 박스 (Primary Source Reading)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어찌 사람들의 가결이나 변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단 말인가! 교회가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생긴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조롱하는 극악한 모독이다. ... 성경은 스스로 증명하는 자증적(自證的, Autopiston) 진리이므로 인간의 이성이나 논증의 법정에 굴복하지 않는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친히 증언하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결코 사람의 영혼에 구원의 확신을 낳을 수 없다!” (칼빈, 『기독교 강요』 1.7.1, 5)

Ⅲ. 비교 대조표: 성경 권위 인식의 3대 관점

구분	로마 가톨릭 (교권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역사적 개혁주의 (칼빈)
권위의 원천	교회의 승인과 교황의 교도권	인간 이성과 역사 비평 검증	하나님 자신 및 성경의 자증성
확신의 근거	사제 계급에 대한 맹목적 복종	논리적 정합성과 과학적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 (인치심)
성경과 교회	교회가 성경의 어머니	이성이 성경의 재판관	성경이 교회의 어머니이자 기초
최종 귀결	교권의 폭정과 맹종	끊임없는 회의와 영적 파산	양심의 완전한 자유와 절대 평안

Ⅳ. 소그룹 나눔 및 묵상 기록장

- Q1. 내 인생에서 성경 말씀이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직접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다가왔던 거룩한 체험은 무엇입니까?

👉 나의 묵상: _____

- Q2. 사람의 말이나 여론, 지적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성경 앞에 무릎 꿇기 위해 오늘 실천할 구체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 나의 결단: _____

Ⅴ.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마침 기도문

암송 구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21)

나의 기도: “오 주님,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자가 점검 정답표]

- ① 승인(판단) ② 터(기초) ③ 어머니 ④ 예비적(안내자) ⑤ 안식(확신) ⑥ 반론(회의) ⑦ 자증적(Autopiston)
⑧ 인침(도장) ⑨ 성령 ⑩ 입술

[제08강 학생용 빈칸교재] 성경의 신빙성과 이성적 입증

[부제] 역사의 증언과 순교자들의 피 — 성경의 확실성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이성적 증거들과 2차적 보조 수단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8장 집중 강독 워크북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_ / 소그룹: _____ / 일시: 2026년 _월 _____ 일

I. 강의 핵심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0문항)

- 1. 성경은 인간의 화려한 웅변술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한 문체 속에 인간의 모든 수사학을 압도하는 [①] 위엄을 담고 있다. (1.8.1)
- 2. 모세는 자기 가문인 [②] 지파에 대한 야곱의 저주와 누이 미리암의 수치, 자신의 불순종까지 숨김없이 기록함으로써 그의 사심 없는 진실성을 입증했다. (1.8.4)
- 3. 광야 40년 동안 내린 만나와 갈라진 홍해 등 모세가 기록한 이적들은 은밀한 눈속임이 아니라 온 백성과 대적들이 대낮에 목격한 [③] 기적이었다. (1.8.5-6)
- 4.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100여 년 뒤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릴 페르시아 왕 [④]의 이름을 정확하게 예언했다. (1.8.8)
- 5.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도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정확히 [⑤]년이 될 것임을 확고하게 선포했다. (1.8.8)
- 6. 시리아의 폭군 [⑥] 에피파네스가 성경 두루마리를 모조리 불태우고 소지자를 처형했으나 성경은 기적적으로 온전히 보존되었다. (1.8.10)
- 7. 신약의 사도들은 갈릴리의 어부와 세리 같은 평범한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전한 단순한 복음은 로마 제국의 철학과 황제의 [⑦]을 무너뜨렸다. (1.8.11)
- 8.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사자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성경의 진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⑧]을 바쳤다. (1.8.12)
- 9. 칼빈은 이러한 역사적·이성적 증거들이 그 자체로 믿음을 창조하는 기초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인침 받은 신자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는 귀한 [⑨] 수단(Subsidia)이라고 규정했다. (1.8.13)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글을 읽으면 우리는 감탄하며 마음이 움직인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면 찬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거기서 돌이켜 성경을 읽어보라! 인간의 글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생생한 능력이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심장을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사로잡는다. 성경의 단순하고 소박한 언어 속에는 세상의 모든 웅변가와 철학자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신적 위엄이 충만하게 박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능한 손길로 역사를 지휘하셨다.” (『기독교 강요』 1.8.1, 10)

III. 4대 신학 비교 분석표: 성경의 확실성과 이성의 역할

구분	합리주의 / 자유주의	신비주의 / 광신파	로마 가톨릭	개혁주의 (존 칼빈)
성경의 확실 근거	인간 이성의 역사적·과학적 검증	개인의 주관적 직통 계시와 환상	교황과 교회의 유권 해석 및 공인	성령의 내적 증거 (1차적 본질)
이성적 증거의 위치	신앙의 유일한 최고 법정	무가치하거나 영성을 해치는 방해물	교회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장식물	믿음을 돕고 대적을 막는 보조 도구 (Subsidia)
역사적 예언과 기적	후대의 조작이나 상징적 신화로 폄하	영적 알레고리로만 소비	사제 계급의 기적적 권능으로 환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성경 보존의 역사	우연한 문서 전승의 결과	내적 영에만 집중하여 문서 경시	교회의 보존 공로를 칭송	역사의 박해를 이기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핵심 암송 구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8)

• 결단의 기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박해와 불꽃 속에서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일 점 일 획도 변함없이 보존하여 오늘 제 손에 쥐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회의주의적 의심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심장에 새겨주신 확실한 믿음과 역사 속에 빛나는 객관적 증거들을 의지하여 주의 거룩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지성적으로 변증하는 성숙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V. [학생용 정답 확인란]

[빈칸 정답]

- ① 천상적(신적) / ② 레위 / ③ 공개적 / ④ 고레스 / ⑤ 70
⑥ 안티오크스 / ⑦ 권력(칼날) / ⑧ 목숨(피) / ⑨ 보조적 / ⑩ 이성만능주의

[제09강 학생용 빈칸교재] 직통 계시파의 오류와 성경의 충족성

[부제] 말씀 없는 성령과 성령 없는 말씀의 함정 — 왜 직통 계시는 교회를 파괴하는 영적 교만인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9장 |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_ | 소그룹: _____ - 제출일시: 2026. ____ | 확인: _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열광주의 광신자들의 치명적 교만 (1.9.1)

- 16세기 재세례파 광신자들은 성경을 하찮은 죽은 [①] 로 매도하며, 자신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과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 칼빈은 성령을 핑계 삼아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사탄의 거짓된 울무에 걸린 영적 [②] 상태에 빠져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허황된 새 계시를 지껄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③] 되었음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2.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리적 연합 (1.9.1~2)

- 이사야 59:21에 계시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위에 있는 [④] 과 입에 두신 [⑤] 은 영원토록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무질서한 광기와 마귀적 환상으로 직결되고, 성령 없는 말씀 연구는 차가운 [⑥] 주의로 전락합니다.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3. 사도들의 모범과 성경의 완전한 충족성 (1.9.2~3)

- 삼층천의 신비한 계시를 직접 체험했던 사도 [⑧]조차 평생 구약 성경의 권위 아래 무릎 꿇고 디모데에게 성경 읽기에 전념하라고 명했습니다.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신 목적은 성경을 던져버리게 함이 아니라, [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눅 24:45).
- 오늘날 성령의 사역은 새로운 계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66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⑩] (조명) 사역입니다.

Ⅱ. 사료 심층 강독 원전 박스 (Primary Source Reading)

칼빈의 『기독교 강요』 1.9.1, 3 원전 강독

“성경을 버리고서, 이런저런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오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광란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아주 경솔한 사람들이 일어나 극도로 오만한 태도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자랑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성경 읽기를 전적으로 멸시할 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단순함을 고수하는 다른 사람들의 순진함을 비웃고 있다. ...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는데(눅 24:27, 45), 이는 그들이 성경을 던져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지혜로워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 성령의 조명하심은 말씀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핵심 질문]

1. 칼빈이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열광주의자들을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광란의 상태'라고 단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란): _____ 2.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행하신 사역(눅 24:45)을 볼 때, 참된 성령의 조명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니까?

(답변란): _____

Ⅲ. 4대 신학 비교 분석 매트릭스

비교 항목	열광주의 (직통 계시파)	죽은 문자주의 (율법/이성주의)	로마 가톨릭 (교황주의)	개혁주의 (존 칼빈)
계시의 원천	개인의 주관적 음성·환상	인간의 이성 및 외적 조문	성경 + 교회의 전통·교황	오직 성경 66권 (Sola Scriptura)
말씀과 성령	성경을 배제한 성령 추구	성령 없는 메마른 문자 연구	교권 아래 성령과 성경 종속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리적 연합
성령의 현재 사역	새로운 계시와 예언 창출	역사적 기록 보존에 국한	교황 무오성의 도구	기록된 말씀의 내적 조명 (Illuminatio)
신앙의 열매	영적 교만, 분열, 광신적 탈선	차가운 바리새파적 정죄	맹목적 복종과 미신	겸손한 순종, 영적分別, 참된 자유

Ⅳ. 소그룹 나눔 및 묵상 기록장

- Q1. [마음 열기 & 자기 성찰] 내 삶에서 말씀 묵상을 통한 씨름 대신 손쉬운 즉흥적 표적이나 주관적인 '영적 느낌'을 쫓다가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 나의 묵상: _____

- Q2. [결단과 삶의 적용] 성경 66권의 충족성을 확신하며, 내 삶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말씀의 지혜와 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 나의 결단: _____

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마침 기도문

암송 구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6-17)

나의 기도: “진리의 성령 하나님, 성경을 벗어난 허황된 환상이나 주관적 느낌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소서. 오직 성경 66권의 기록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연합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순종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자가 점검 정답표]

① 문자 ② 광란(*furor*) ③ 성취 ④ 영(성령) ⑤ 말(말씀) ⑥ 형식(율법) ⑦ Cum(함께) ⑧ 바울 ⑨ 성경 ⑩ 조명(*Illuminatio*)

[제10강 학생용 빈칸교재] 성경이 증언하는 유 일하신 참 하나님

[부제] 우상의 안개를 걷어내는 계시의 빛 — 성경은 어떻게 모든 이방 신들을
물리치고 참 하나님을 알리는가?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0장 |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_ | 소그룹: _____ - 제출일시: 2026. ____ | 확인: _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창조 세계와 성경 계시의 완전한 일치 (1.10.1)

-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창조 세계에 새겨져 있는 지식과 정확히
[①] 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 성경은 피조물들의 거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죄로
어두워진 우리 눈에 거룩한 [②] 이 되어 하나님을 선명히 보게 합니다.
-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결코
둘이 아니라 [③] 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2.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호와 속성 (1.10.2)

- 시내산에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시며
영원불변하신 [④] 이십니다 (출 34:6).
- 하나님께서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풍성한 [⑤] 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⑥] 의
심판관이십니다.

•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분이신가([⑦] sit erga nos)"를 보여주는 인격적·실천적 지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우상들의 허무함과 오직 여호와께 돌릴 영광 (1.10.3)

- 성경은 모든 인간의 종교적 미신을 교정하기 위해 열방의 모든 거짓 신들을 단호히 [⑧] 하고 오직 참 하나님만을 세웁니다.
- 시편 115편이 선포하듯,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헛된 [⑨] 에 불과합니다.
- 예레미야 9:23-24에 따라 성도가 세상의 지혜나 부귀보다 가장 크게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를 [⑩] 지식입니다.

Ⅱ. 사료 심층 강독 원전 박스 (Primary Source Reading)

칼빈의 『기독교 강요』 1.10.2 원전 강독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묘사되시는 바가 그의 사역들(창조) 속에서 묘사되시는 바와 정확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본질에 대한 공허한 사변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의 권능을 경외하고, 그의 지혜를 찬양하며,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홀로 계실 때 어떠한 분인가 (*quid sit apud se*)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분이신가(*qualis sit erga nos*)를 가르쳐 준다!”

[핵심 질문]

1. 칼빈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공허한 철학적 사변'을 단호히 배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란): _____ 2.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Qualis erga nos*)'이라는 원리가 성도의 기도와 예배에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변란): _____

Ⅲ. 4대 신학 비교 분석 매트릭스

비교 항목	고대 이교 다신론 (그리스/로마)	중세 스콜라 철학 (공허한 사변)	현대 다원주의 / 범신론	역사적 개혁주의 (존 칼빈)
신의 본질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복수의 신들	존재 자체(<i>Ipsum Esse</i>)의 철학적 개념	모든 만물 속에 깃든 에너지	영원·자존하시는 인격적 창조주
신지식의 성격	신화와 제의적 거래	지적 논쟁과 논리적 추론	주관적 영성과 감성	경건과 순종을 낳는 실천적 지식
속성의 조화	신들 간의 갈등과 변덕	하나님의 속성을 추상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배제	무한한 자비와 거룩한 공의의 일치
인간의 반응	미신적 두려움과 회유	차가운 지적 만족	자기 숭배와 도덕적 상대주의	거룩한 경외, 전적인 신뢰, 찬양

Ⅳ. 소그룹 나눔 및 묵상 기록장

- Q1. [마음 열기 & 자기 성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생각하며 거룩한 공의를 잊었거나,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만을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의심했던 불균형은 없었습니까?

👉 나의 묵상: _____

- Q2. [결단과 삶의 적용] 예레미야 9:23-24 말씀처럼, 이번 주간 세상의 자랑거리 (성공, 재물, 인정) 대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뻐하고 증언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 나의 결단: _____

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마침 기도문

암송 구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24)

나의 기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 철학자들의 공허한 사변이나 내 좁은 머릿속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성경 66권이 계시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생애 최고의 자랑과 기쁨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자가 점검 정답표]

① 동일 ② 안경 ③ 유일 ④ 여호와(야훼) ⑤ 자비(은혜) ⑥ 공의(심판) ⑦ Qualis(어떠한) ⑧ 배제(배격) ⑨ 우상 ⑩ 아는

[제11강 학생용 빈칸교재] 우상 숭배의 불경함과 형상 제작 금지

[부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물질에 가두는 죄 — 형상 숭배의 오류와 영적 예배의 회복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1장 |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_ | 소그룹: _____ - 제출일시: 2026. ____ | 확인: _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십계명 제2계명의 엄위와 하나님의 영적 본질 (1.11.1~2)

- 십계명 제2계명은 하나님을 물질적인 형태로 형상화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금지하며, 어떤 [①] 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출 20:4).
- 신명기 4:12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오직 말소리만 듣고 아무런 [②] 도 보지 못했습니다.
- 무한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유한한 물질의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③] 에 대한 가증한 모독입니다.

2. "문맹자의 책"이라는 교황주의 궤변 논박 (1.11.3~7)

- 로마 가톨릭은 성상이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④] 의 책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 그러나 하박국 2:18은 부어 만든 우상을 가리켜 참된 스승이 아니라 영혼을 속이는 [⑤] 스승(Doctor Mendacii)이라고 선언했습니다.

•
때문에, 그 빈자리를 병어리 우상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3. 인간 마음의 우상 제조 공장과 예술의 올바른 사용 (1.11.8~12)

- 칼빈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며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구적인 [⑦] (*Idolorum Fabrica*)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 칼빈은 회화와 조각 예술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예술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⑧] 으로서 역사적 사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데 유익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⑨] 의 목적으로 형상을 교회당에 세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15의 선언대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참된 [⑩] 이십니다.

Ⅱ. 사료 심층 강독 원전 박스 (Primary Source Reading)

칼빈의 『기독교 강요』 1.11.1, 8 원전 강독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거짓 신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거의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 자체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다. ... 무한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5척 단신의 인간의 모습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조각해 놓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더러운 진흙탕에 내던져지고 만다! ...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구적인 공장이다(*Mens humana perpetua idolorum fabrica est*). 인간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육신의 정욕에 알맞은 가시적인 하나님을 스스로 주조해 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저주받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

[핵심 질문]

1. 칼빈이 하나님을 가시적인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진흙탕에 던지는 행위"라고 비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란): _____ 2.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는 선언이 오늘날

(답변란): _____

Ⅲ. 4대 신학 비교 분석 매트릭스

비교 항목	고대 이교 우상 숭배	로마 가톨릭 (성화·성상 숭배)	급진 재세례파 (맹목적 파괴)	역사적 개혁주의 (존 칼빈)
형상의 본질	신 그 자체의 육체적 거처	문맹자를 위한 거룩한 책	사탄의 물질, 예술 자체 거부	거짓 스승, 신적 위임의 모독
예배의 형태	신상 앞 제사 및 주술적 복종	성상 앞 분향, 입맞춤, 간구	무질서한 폭동과 파괴주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말씀 예배
예술의 위상	신화적 우상 제작에 국한	교권과 미신을 강화하는 도구	예술과 문화 전면 거부	하나님의 일반은총 선물로 인정
참된 하나님의 형상	존재하지 않음	성상과 성유물	내면의 영적 신비	오직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골 1:15)

Ⅳ. 소그룹 나눔 및 묵상 기록장

- Q1. [마음 열기 & 자기 성찰]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 손에 쥐어지는 물질, 눈에 보이는 성과를 더 의지했던 '우상 제조'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 나의 묵상: _____

주간 내 삶의 공간과 마음속에서 철거해야 할 '현대판 우상'은 무엇입니까?

👉 나의 결단: _____

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마침 기도문

암송 구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나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 좁은 생각과 눈에 보이는 물질의 틀 속에 가두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내 마음속 우상 공장에서 뿜어내는 모든 탐욕과 자기 의를 깨뜨려 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 한 분만을 순결하게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자가 점검 정답표]

① 형상(우상) ② 형상 ③ 위엄 ④ 문맹자 ⑤ 거짓 ⑥ 말씀(복음) ⑦ 공장(*Fabrica*) ⑧ 선물 ⑨ 예배 ⑩ 형상

[제12강 학생용 빈칸교재] 하나님과 우상의 구별과 오직 주께만 돌릴 영광

[부제] 타협할 수 없는 영광의 주권 — 라트리아와 돌리아의 궤변을 넘어 오직 여호와께만 돌리는 참된 예배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2장 |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_ | 소그룹: _____ - 제출일시: 2026. ____ | 확인: _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하나님의 영광의 배타적 주권과 종교의 어원 (1.12.1)

- 이사야 42:8에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①]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 라틴어 '종교(Religio)'는 '다시 묶는다'는 뜻의 [②] (Religare)에서 유래하여, 인간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묶어두는 거룩한 경건을 뜻합니다.
-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피조물에게 마음을 나누어주는 순간, 그것은 참된 종교가 아니라 가증한 [③] (Superstitio)으로 전락합니다.

2. 라트리아와 돌리아 구분의 기만성 분쇄 (1.12.2)

-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④] (Latria)라 하고, 성자들이나 천사들에게 바치는 공경을 [⑤] (Dulia)라고 칭하며 성자 숭배를 정당화했습니다.
- 그러나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구별 없이 혼용되며, 둘 다 오직 [⑥]께만 드려야 할 거룩한 섬김을 가리킵니다.

•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⑦] 하라(마 4:10)"며 단칼에 물리치셨습니다.

3. 사도와 천사의 거절 및 온전한 단독 예배 (1.12.2~3)

- 루스드라에서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 하자, 사도들은 자기 [⑧] 을 찢으며 피조물 숭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행 14:14).
- 밧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을 때, 천사는 "그리하지 말고 오직 [⑨] 께 경배하라"며 엄히 경고했습니다 (계 19:10).
- 칼빈은 하나님을 온전히 홀로 예배하지 않는 것([⑩] solidum)은 사실상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결론지었습니다.

Ⅱ. 사료 심층 강독 원전 박스 (Primary Source Reading)

칼빈의 『기독교 강요』 1.12.1, 3 원전 강독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조금도 침해당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모든 찬양과 영광을 그분에게만 보존해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엄숙히 선포하셨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 42:8, 48:11). ...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성자들에게 기도를 올리거나 피조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교묘하게 ‘둘리아’니 ‘라트리아’니 하는 단어의 껍질로 속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강도질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극히 일부라도 다른 피조물과 나누어 가지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온전히, 독점적으로 홀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nisi in solidum colatur*)!”

[핵심 질문]

1. 칼빈이 로마 가톨릭의 '라트리아'와 '둘리아' 구분을 가리켜 "하나님을 강도질하는 행위"라고 규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란): _____ 2. '온전히 단독으로 예배함(*In solidum*)'이라는 원리가 오늘날 나의 물질관과 진로 결정에 주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변란): _____

Ⅲ. 4대 신학 비교 분석 매트릭스

비교 항목	고대 이교 다신론	로마 가톨릭 (성자·성상 숭배)	현대 세속주의 (물질 숭배)	역사적 개혁주의 (존 칼빈)
예배의 대상	여러 신들과 영웅들	삼위일체 + 성자들 + 마리아	돈, 권력, 성공, 자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Soli Deo Gloria)
중보자의 수	수많은 무당과 신탁	예수 그리스도 + 수많은 성자들	유력한 인맥과 자본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분할	여러 신들에게 나누어 바침	라트리아 / 둘리아 궤변적 분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양다리	온전하고 분할할 수 없는 단독 영광 (In Solidum)
기도의 통로	신상과 주술적 주문	성자들의 공로와 유물	자기 확언과 긍정의 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

Ⅳ. 소그룹 나눔 및 묵상 기록장

- Q1. [마음 열기 & 자기 성찰]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보험, 인맥, 재물에 마음의 안전장치를 걸어두며 영광을 나누었던 적은 없습니까?

👉 나의 묵상: _____

- Q2. [결단과 삶의 적용]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번 주간 내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할 시간, 물질, 충성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 나의 결단: _____

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마침 기도문

암송 구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8)

나의 기도: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의 분열된 영광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영적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게 하소서.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영혼의 모든 사랑과 순종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순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자가 점검 정답표]

① 우상 ② 렐리가레(Religare) ③ 미신(Superstitio) ④ 라트리아(Latria) ⑤ 둘리아(Dulia) ⑥ 하나님 ⑦ 섬기(예배) ⑧ 옷 ⑨ 하나님 ⑩ In(온전히)

[제13강 학생용 빈칸교재]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

[부제] 하나의 본질 안에 계신 영원한 삼위 — 삼위일체의 신비와 역사적 이단의 논파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3장 |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 | 소그룹: ____ - 제출일시: 2026. ____ | 확인: 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본질의 단일성과 삼위의 구별 (1.13.1~6)

-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의 단일한 [①] (*Essentia*)이시며, 그 안에 영원히 구별된 [②] (*Tres Personae*)가 계심을 증언합니다.
-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에서 아들을 하나님의 [③] (*Hypostasis*)의 형상이라고 선언하며 본질과 위격의 구별을 확증했습니다.
- 칼빈은 위격(*Persona*)을 가리켜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실존하는 하나의 구별된 주체([④] in *essentia Dei*)"로서 고유한 특성으로 구별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2. 성자와 성령의 영원하고 참된 신성 (1.13.7~15)

-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⑤] 이시니라(요 1:1)"며 성자의 신성을 선언했습니다.
-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⑥] 이시니이다(요 20:28)"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 사도 행전 5:3~4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 성령을 속인 죄는 곧 [⑦] 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준엄하게 선언했습니다.

3. 상호내주와 역사적 이단의 분쇄 (1.13.16~29)

- 을 명령하셨습니다.
-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가면을 바꾸어 쓴다고 주장하며 위격의 실재성을 부인한 고대 이단은 [⑨]의 양태론(Modalism)입니다.
-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열등한 최고의 첫 피조물로 격하시키며 신성을 훼손한 이단은 [⑩]의 종속론(Arianism)입니다.

Ⅱ. 사료 심층 강독 원전 박스 (Primary Source Reading)

칼빈의 『기독교 강요』 1.13.2, 6 원전 강독

“하나님의 본질은 극히 단순하고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신다. 교회가 '위격(Persona)'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인간의 사변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 방패이다. ...

위격이란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실존하는 하나의 주체(*subsistentia in essentia Dei*)로서, 다른 위격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결코 다른 위격에 전달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proprietas incommunicabili*)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성부는 스스로 계시며 모든 사역의 시작이시고, 성자는 지혜와 경륜이시며, 성령은 능력과 효력이시다. 그러나 이 셋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동일 본질(*homoousios*)을 공유하시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핵심 질문]

1. 칼빈이 교회의 '위격(Persona)'이나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 사용을 교회의 불가피한 방패라고 옹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란): _____ 2. '삼위의 상호내주(Perichoresis)' 교리가 오늘날 내 기도 생활(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나아감)에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변란): _____

Ⅲ. 4대 신학 비교 분석 매트릭스

비교 항목	사벨리우스 양태론 (Modalism)	아리우스 종속론 (Arianism)	세르베투스 유니 테리언	역사적 개혁주의 (존 칼빈)
본질과 위 격	한 본질, 한 위격 (가면 변경)	한 본질, 성자는 피조 물	삼위일체 자체를 조롱	단일 본질 (Una Essentia), 영원한 삼 위 (Tres Personae)
그리스도 의 신성	성부의 또 다른 양태에 불과	피조물 중 으뜸, 신성 부인	신적 본질의 분여 물로 간주	성부와 영원한 동일 본질 (Homoousios, 참 하나님)
성령의 신 격	활동력이나 영향력으 로 축소	단순한 영적 피조물 로 격하	영적 기운이나 바 람으로 폄하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영원한 참 하나 님
기도와 구 원	자기 자신과의 독백으 로 전략	피조물의 중보 (구원 불가능)	범신론적 혼합으 로 파탄	성령 안에서, 성자를 힘입어, 성부께 간구 (완전한 구원)

Ⅳ. 소그룹 나눔 및 묵상 기록장

- Q1. [마음 열기 & 오류 점검] "물-얼음-수증기"나 "한 사람의 여러 역할" 비유처럼, 내 머릿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던 비성경적 삼위일체 오해는 무엇이었습니까?

👉 나의 묵상: _____

- Q2. [기도와 삶의 적용] 성부의 사랑의 선택, 성자의 십자가 대속,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라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번 주간 내 기도와 예배는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겠습니까?

👉 나의 결단: _____

Ⅴ.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마침 기도문

암송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태복음 28:19)

로 주님을 재단하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인도하심 속에서, 유일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사랑이 풍성하신 성부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처럼, 우리 교회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자가 점검 정답표]

① 본질 ② 삼위 ③ 본체 ④ 실존(subsistentia) ⑤ 하나님 ⑥ 하나님 ⑦ 하나님 ⑧ 이름 ⑨ 사벨리우스 ⑩ 아리우스

[제14장 학생용 빈칸교재] 우주 만물의 창조와 천사론

[부제] 옛세 동안의 창조 경륜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실재 — 천사의 직무와 마귀의 꾀계 분쇄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4장 |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 | 소그룹: ____ - 제출일시: 2026. ____ | 확인: 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옛세(6일) 창조와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배려 (1.14.1~4)

- 칼빈은 온 우주가 인간을 위하여 지어진 [①] 의 거대한 극장(Theatrum Gloriae Dei)이라고 묘사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세상을 순간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옛세 동안 점진적으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②] 적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 자비로운 아버지가 갓 태어날 아기를 위해 요람과 양식을 미리 준비하듯, 하나님은 인간 창조 전에 모든 필요를 [③] 해 두셨습니다.

2. 천사의 영적 본질과 거룩한 직무 (1.14.5~12)

-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하늘의 [④]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는 사역자입니다.
- 히브리서 1:14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⑤]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이 아니냐"고 증언합니다.
- 천사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증하는 도구일 뿐, 결코 우리의 [⑥] 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중세의 가짜 디오니시우스가 조작한 허황된 천사 계급론은 배격되어야 합니다.

3. 마귀론과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 (1.14.13~22)

- 마귀의 악함은 창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교만한 반역과 [⑦] 에 기인한 것입니다.

•

합니다.

- 마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제와 [⑨] (*Frenum*) 아래 묶여 있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⑩] 를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Ⅱ. 사료 심층 강독 원전 박스 (Primary Source Reading)

칼빈의 『기독교 강요』 1.14.2, 17 원전 강독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의 풍요로운 만물을 먼저 예비해 두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황무지 같은 세상에 던져두셨다면, 인간은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집과 양식을 완벽히 갖추어 놓듯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부성애를 맛보아야 한다. ...

사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자들은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주권자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허락과 굴레(*frenum*) 아래 묶여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핵심 질문]

1. 칼빈이 옛세 창조의 순서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배려"라고 설명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란): _____ 2. 마귀가 '하나님의 굴레(고삐) 아래 매여 있다'는 진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에게 주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답변란): _____

Ⅲ. 4대 신학 비교 분석 매트릭스

비교 항목	고대 마니교 (Manichaeism)	중세 로마 가톨릭 (천사 숭배)	현대 유물론 / 세속 주의	역사적 개혁주의 (존 칼빈)
창조의 기원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충돌	하나님의 창조 (사변 덧붙임)	우연한 빅뱅과 자연 선택	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무(無)에서의 창조
천사의 위치	빛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	9계급 천사론, 천사 중보 기도	비과학적 미신으로 전면 부정	구원받을 성도를 섬기는 영적 사역자 (숭배 배격)
마귀의 권세	하나님과 동등한 대립적 악신	마귀에 대한 미신적 공포	인간 내면의 심리적 착각	하나님의 고삐 아래 묶인 피조물 (십자가로 정복됨)
영적 무장	신비주의적 금욕과 정결 예식	성수, 묵주, 성자 부적 의존	물질적 치료와 인간적 의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전신갑주 (엡 6장)

IV. 소그룹 나눔 및 묵상 기록장

- Q1. [마음 열기 & 일상의 묵상]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장임을 체감했던 경험은 있으신가요?

👉 나의 묵상: _____

- Q2. [결단과 영적 전쟁] 최근 내 영혼을 흔들고 믿음을 떨어뜨리려 했던 사탄의 유혹이나 의심의 불화살은 무엇이었으며, 이번 주간 어떤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셨습니까?

👉 나의 결단: _____

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마침 기도문

암송 구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14)

질과 미래에 대해 염려하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내사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또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자가 점검 정답표]

① 하나님 영광 ② 교육(배려) ③ 예비 ④ 영적 ⑤ 구원 ⑥ 숭배(예배) ⑦ 타락 ⑧ 마니교 ⑨ 고삐(굴레) ⑩ 전신갑주

[제15장 학생용 빈칸교재] 인간 창조와 영혼의 불멸성, 하나님의 형상

[부제] 흠으로 빚어진 육체와 생기 어린 영혼의 존엄 —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본질과 회복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5장 |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 | 소그룹: ____ - 제출일시: 2026. ____ | 확인: 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인간의 이중적 본성과 영혼의 불멸성 (1.15.1~2)

- 인간은 흠으로 빚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①] (*Anima immortalis*)으로 지음받았습니다.
- 칼빈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도 죄를 지으면 두려워 떠는 인간의 [②] (*Conscientia*)이 영혼의 비물질적 실재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논증했습니다.
- 예수님은 마태복음 10:28에서 "몸은 죽여도 [③] 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2.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참된 본질 (1.15.3~4)

-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외적 신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내적 탁월함, 곧 참된 [④] (*Scientia*)과 의(*Iustitia*)와 진리의 [⑤] (*Sanctitas*)에 있습니다.
-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10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⑥] 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외적 육체에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한 자는 16세기 광신자 [⑦] (*Osiander*)였습니다.

3. 형상의 타락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 (1.15.4~8)

•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 고린도후서 4:4에서 증언하듯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자체이신 분은 바로 둘째 아담

[⑨] 이십니다.

- 칼빈은 영혼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리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⑩] (*Intellectus*)과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의지(*Voluntas*)로 정의했습니다.

Ⅱ. 사료 심층 강독 원전 박스 (Primary Source Reading)

칼빈의 『기독교 강요』 1.15.3, 4 원전 강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신체에 반영되어 있다는 오시안더의 망상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체적 형상을 가지지 않으신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정의하였다. 즉,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리고 ‘참된 지식’이다! ...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지성에 완전한 분별의 빛을 비추셨고, 그의 의지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의로움을 심으셨으며, 그의 모든 감정을 순결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형상이 무참히 깨어지고 파괴되었으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이 형상을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새롭게 빚어가신다!”

[핵심 질문]

1.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면서 바울 서신(골 3:10, 엡 4:24)을 핵심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란): _____ 2. '하나님의 형상' 교리가 외모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오늘날 나의 자존감과 이웃 사랑에 주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변란): _____

Ⅲ. 4대 신학 비교 분석 매트릭스

비교 항목	세속 유물론 (진화론)	고대 영지주의 (이 원론)	오시안더 (광신주의)	역사적 개혁주의 (존 칼빈)
인간의 기원	물질의 우연한 진화 (원숭이 후손)	악한 데미우르고스의 창조	하나님의 본질적 유출	흠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주신 하나님의 결작
영혼의 본질	뇌의 전기화학적 부수현상 (사멸)	영만 선하고 육체는 감옥	신적 본질의 물리적 혼합	독립 실존하는 불멸의 영적 실체 (영벌/영생)
하나님의 형상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환상	영혼 깊은 곳의 신적 불꽃	외적 신체와 육체적 형상	영혼 안의 지식, 의, 거룩함 (Imago Dei)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유용성과 생존 능력 기준	영적 지식을 깨달은 엘리트	신비적 합일 체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절대적 인격 존엄성

IV. 소그룹 나눔 및 묵상 기록장

- Q1. [마음 열기 & 자아상 점검] 나는 내 가치를 세상의 스펙, 재산, 외모에서 찾으려 하며 열등감이나 교만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 나의 묵상: _____

- Q2. [결단과 언어의 성화] 야고보서 3:9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향해 분노와 험담을 쏟아냈던 죄를 회개하고, 이번 주간 회복해야 할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 나의 결단: _____

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마침 기도문

암송 구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10)

아 일그러지고 부패했던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내 지성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내 의지를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사, 날마다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 곁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자가 점검 정답표]

① 영혼(불멸의 영혼) ② 양심 ③ 영혼 ④ 지식 ⑤ 거룩함 ⑥ 지식 ⑦ 오시안더 ⑧ 파괴(훼손) ⑨ 예수 그리스도 ⑩ 지성

[제16강 학생용 빈칸교재] 하나님의 섭리와 만물의 통치

[부제] 단순한 예지를 넘어선 능동적 주권 — 우연과 운명론을 배격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6장 |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 | 소그룹: ____ - 제출일시: 2026. ____ | 확인: 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창조와 분리될 수 없는 섭리의 본질 (1.16.1~2)

- 칼빈은 하나님을 단순히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만 고백하고 보존과 통치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상 [①] 시키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태엽 시계처럼 만들어놓고 방관하신다는 사상은 계몽주의의 [②] (Deism)적 오류입니다.
- 히브리서 1:3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③]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2. 능동적 주권과 거짓된 미신 분쇄 (1.16.3~7)

- 섭리는 높은 하늘에서 바라만 보는 단순한 [④] (Praescientia)가 아니라, 모든 사건을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⑤] 적 주권(Actuosa gubernatio)입니다.
- 세상 사람들이 맹신하는 맹목적인 [⑥] (Fortuna)이나 스토아학파의 기계적 [⑦] (Fatum)은 성경적 섭리 신앙과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 잠언 16:33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⑧] 께 있느니라"고 선언합니다.

3. 특별 섭리와 성도의 담대함 (1.16.8~9)

- 마태복음 10:29~30에서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며, 성도의 [⑨] 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섰다고 고백했습니다.

II. 사료 심층 강독 원전 박스 (Primary Source Reading)

칼빈의 『기독교 강요』 1.16.3, 4 원전 강독

“섭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가롭게 높은 망루에 앉아 세상사를 관망하신다는 헛된 상상을 버려야 한다. 섭리는 단순한 예지가 아니라, 만물의 방향타를 굳게 쥐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고 역동적인 손길이다. ...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사건들을 보며 '우연'이나 '운명'을 들먹이지만, 성경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털끝 하나까지 다스리심을 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공중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늘의 비 한 방울도 그냥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온 피조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쉬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통치자이시다!”

[핵심 질문]

1. 칼빈이 하나님의 섭리를 스토아학파의 '운명론'과 명확히 구별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란): _____ 2. '참새와 머리털' 교리가 오늘날 불확실한 미래와 재정적 위기 앞에서 나에게 주는 신앙적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변란): _____

III. 4대 신학 비교 분석 매트릭스

비교 항목	고대 스토아학파 (운명론)	에피쿠로스학파 (우연론)	18세기 이신론 (시계공 이론)	역사적 개혁주의 (존 칼빈)
만물의 통치	비인격적 인과율의 사슬 (Fatum)	맹목적인 원자의 충돌과 우연	자연법칙에 맡기고 하나님 방관	전능하신 인격적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
인간의 고난	피할 수 없는 냉혹한 숙명	그저 재수가 없는 돌발 사고	인간의 무지와 자연재해의 결과	성도를 연단하고 유익을 주시는 선한 손길

비교 항목	고대 스토아학과 (운명론)	에피쿠로스학과 (우연론)	18세기 이신론 (시계공이론)	역사적 개혁주의 (존 칼빈)
기도의 효력	운명이 정해졌으므로 기도 무익	우연이 지배하므로 기도 무의미	자연법칙을 바꿀 수 없으므로 무용	섭리의 통로로서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심
마음의 태도	체념적 순응과 차가운 평정심	찰나의 쾌락 추구하고 불안	이성적 낙관주의와 불안	과거의 감사, 현재의 인내, 미래의 절대 평안

IV. 소그룹 나눔 및 묵상 기록장

- Q1. [마음 열기 & 미신 점검] "운이 나빴다"거나 "사주팔자가 꼬였다"는 식의 세속적 우연론과 운명론이 내 생각과 언어 속에 은연중에 남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 나의 묵상: _____

- Q2. [결단과 삶의 적용] 현재 내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하고 답답한 영역은 무엇이며, 만물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앞에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 나의 결단: _____

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마침 기도문

암송 구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29-31)

나의 기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랑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 떨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성애를 의지합니다. 내 삶에 닥치는 모든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자가 점검 정답표]

① 폐위 ② 이신론 ③ 붙들고 ④ 예지 ⑤ 능동 ⑥ 우연(행운) ⑦ 운명(운명론) ⑧ 여호와 ⑨ 머리털 ⑩ 선

[제17장 학생용 빈칸교재] 섭리 교리의 올바른 적용과 유의

[부제]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인내, 미래에 대한 담대함 — 섭리 교리가 주는 3대 영적 유익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7장 |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 / 소그룹: ____ - 제출일시: 2026. ____ / 확인: 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섭리 교리의 목적과 인간의 책임 (1.17.1~5)

- 칼빈은 섭리 교리가 메마른 신학자들의 사변적 유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도의 마음을 지탱해 주는 가장 실제적인 영적 [①] 라고 강조했습니다.
-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약을 먹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②] 적 꾀변입니다.
-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③] 시니라"고 선포했습니다.
-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의사와 약과 노력이라는 [④] (Media, 제2원인)을 은혜로 주셨으며, 칼빈은 "섭리는 언제나 [⑤] 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온다"고 역설했습니다.

2. 고난 속에서의 감사와 인내 (1.17.6~9)

- 섭리를 깨달은 성도는 형통할 때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과거에 대한 [⑥] (Gratitudo)를 돌려드립니다.
-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형들을 향해 "하나님이 [⑦] 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5)라고 고백했습니다.
- 모든 재산과 열 자녀를 잃은 욥은 강도들을 원망하지 않고 " [⑧]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 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라고 찬양했습니다.
- 다윗은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할 때, 저주하는 자를 벌하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신 [⑨] 의 섭리적 징계를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 섭리를 믿지 못하는 자는 레위기 26장 36절의 경고처럼 바람에 불리는 [⑩] 소리에도 놀라 도망치는 비참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 반면 섭리를 신뢰하는 성도는 시편 23편 4절의 고백처럼 " [⑪] 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적 평안(Securitas)을 누립니다.
-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표현하는 구절들은 하나님의 작정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눈높이에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⑫] 화법(Accommodation)입니다.

II. 원전 핵심 강독 정본 (Primary Source Reading)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17.4, 1.17.11 정본 발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을 뿐 아니라, 그 삶을 우리에게 맡겨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위험을 피할 지혜와 약과 의사라는 수단을 주셨다. 주께서 수단을 베푸셨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섭리는 별거벗은 모습으로 오지 않고 수단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온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마음에 비추어질 때, 성도는 비로소 영혼의 지극한 안식을 얻는다. 성도는 담대히 외친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손에 쥐고 계시니,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위험도 내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 매트릭스 (4-Way Comparative Table)

비교 항목	개혁주의 섭리론 (Calvin)	스토아 운명론 (Stoicism)	세속적 인본주의 (Humanism)	불교·동양 윤회론
만물의 궁극 원인	지혜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비인격적이고 냉혹한 인과율의 쇠사슬 (<i>Fatum</i>)	인간의 자율적 이성과 맹목적 우연 (<i>Chance</i>)	전생의 업보 (Karma)와 순환적 인과
수단(Media)의 위치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도구이자 순종의 통로	무의미한 꼭두각시의 몸부림	인간이 절대화하는 유일한 도구	집착과 고통을 낳는 번뇌의 굴레

비교 항목	개혁주의 섭리론 (Calvin)	스토아 운명론 (Stoicism)	세속적 인본주의 (Humanism)	불교·동양 윤리론
역경 앞에서의 태도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용서와 거룩한 인내	감정을 억누르는 차가운 체념 (Apatheia)	가해자와 환경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	체념과 인과응보적 수용
미래를 대하는 마음	절대적 안식과 담대함 (Securitas)	피할 수 없는 비극에 대한 불안	자기 통제욕에 기인한 끝없는 공황	윤회의 굴레에 대한 두려움

Ⅳ. 소그룹 심화 나눔 및 영적 성찰 (Application Questions)

1. [수단과 청지기] 섭리를 핑계로 건강 관리나 학업, 일터에서의 성실함을 게을리했던 적은 없습니까? "수단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오시는 섭리" 앞에 내가 오늘 회복해야 할 청지기적 책임은 무엇입니까?
2. [요셉의 용서] 나에게 깊은 상처나 손해를 끼쳤던 사람(제2원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했던 요셉처럼, 그 사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연단을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습니까?
3. [나뭇잎 소리와 평안] 최근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잠 못 이루게 했던 "마른 나뭇잎 소리" 같은 세상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4절을 붙들고 그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려봅시다.

Ⅴ. 금주의 암송 말씀 및 결단 기도

암송 구절: 창세기 45:5, 시편 23:4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 45:5)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 23:4)

[결단의 기도]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삶의 발걸음이 주님의 선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뜻밖의 고난과 상처 앞에서도 원수를 미워하며 이를 갚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욥처럼 만사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거룩한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풍문과 나뭇잎 소리에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답 안내 (Answer Key)]

- ① 요새 | ② 운명론(스토아) | ③ 여호와 | ④ 수단 | ⑤ 감사 | ⑥ 생명 | ⑦ 주신 | ⑧ 여호와(하나님) | ⑨ 나뭇잎 | ⑩ 사망 | ⑪ 적응

[제18강 학생용 빈칸교재] 악인의 행위까지 공의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부제] 절대 주권과 신정론의 완성 —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1권 제18장 | 제1학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 / 소그룹: ____ - 제출일시: 2026. __. __ / 확인: 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단순 허용론 비판과 적극적 섭리 (1.18.1~2)

- 칼빈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을 단지 뒤에서 수수방관하셨다는 스콜라 신학의 [①] 론(Mere Permission)을 성경적이지 않은 비겁한 회피책이라고 배격했습니다.
-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은 욥은 강도들이나 사탄을 원망하지 않고 "[②]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라고 신앙고백을 드렸습니다.
- 하나님은 타락한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③] 영을 보내어 심판을 집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왕상 22:22).
- 압살롬의 백주 대낮 패륜 범죄(삼하 16:22) 배후에는 다윗의 은밀한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④] 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2. 원인의 구별과 십자가의 신비 (1.18.2)

- 하나님은 결코 죄의 [⑤] (Auctor peccati)가 아니시며, 온갖 불의와 흠으로부터 지극히 순결하게 보존됩니다.
- 동일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악인의 행동은 [⑥] 의 구별(제1원인 vs 제2원인)과 [⑦] 의 차이에 의해 완전히 분리됩니다.
-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빌라도는 보신주의로 예수를 넘겨주었으나,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사 온 인류의 [⑧] 을 성취하셨습니다(행 4:27-28).

[⑨] 를 이루십니다.

3. 하나님의 뜻의 단일성과 거룩한 경외 (1.18.3~4)

- 어거스틴은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⑩] 하여 행해지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향해 건방지게 심문하는 인간의 교만을 향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⑪] 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Ⅱ. 원전 핵심 강독 정본 (Primary Source Reading)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18.1, 1.18.3 정본 발췌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도 그들의 불법에 전혀 오염되지 않으시며, 그들과 더불어 활동하시면서도 죄책을 지지 않으시며, 자신이 쓰시는 그 악인들을 올바르게 정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자들이 행하심과 허용하심을 구별하는 헛된 회피책을 고안해 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단 하나이며 지극히 조화롭다. 결코 하나님 안에 두 개의 모순된 뜻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피조물인 우리의 유한한 지성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은밀한 경륜의 신비를 다 헤아리지 못하여 두 개처럼 보일 뿐이다!”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 매트릭스 (4-Way Comparative Table)

비교 항목	개혁주의 신정론 (Calvin)	스콜라 허용론 (Aquinas)	마니교·영지주의 이원론	세속적 불가지론
악의 존재와 위치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와 섭리 아래 종속됨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소극적 방관	선신과 대등하게 싸우는 독립된 악신	맹목적 우연과 진화론적 비극
하나님과 악의 관계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악을 선으로 바꾸심	죄책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축소	하나님이 악을 통제하지 못함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

비교 항목	개혁주의 신정론 (Calvin)	스콜라 허용론 (Aquinas)	마니교·영지주의 이원론	세속적 불가지론
십자가 사건 해석	악인의 불법과 하나님의 구속 작정의 일치	우발적 비극을 하나님이 사후에 수습함	물질 세계의 필연적 타락	종교적 광신이 낳은 비극적 죽음
신자의 영적 태도	절대 주권 앞의 거룩한 경외와 인내	불안정한 신인협동적 긴장	육체와 물질에 대한 혐오	냉소주의와 허무주의

Ⅳ. 소그룹 심화 나눔 및 영적 성찰 (Application Questions)

- [신정론과 회의] 세상의 흉악 범죄나 악인들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을 방치하시는가"라고 회의했던 적은 없습니까? 악인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종속되어 있다는 진리가 내게 어떤 확신을 줍니까?
- [원인과 목적의 차이] 십자가에서 유다는 탐욕으로 예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내 삶에서 누군가의 악의적인 공격이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되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경외와 침묵]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는가"라며 대들기보다, 로마서 11:33의 고백처럼 주님의 깊은 지혜 앞에 엎드려 경외를 드려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Ⅴ. 금주의 암송 말씀 및 결단 기도

암송 구절: 사도행전 4:27~28, 로마서 11:33

“과연 해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행 4:27-28)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 11:33)

[결단의 기도]

만유의 주재이시며 홀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악행마저도 통제하시며 구속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불의한 자들의 행동을 보며 불평하거나 원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않게 하시고, 오직 주권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히 승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답 안내 (Answer Key)]

① 허용(소극적 허용) | ② 주신 | ③ 거짓말하는 | ④ 공의(심판) | ⑤ 조성자 | ⑥ 원인 | ⑦ 목적 | ⑧ 구원 | ⑨ 공의(구속) | ⑩ 반(반대) | ⑪ 반문

제19장: 아담의 타락과 원죄, 인류의 부패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제2학기를 시작하며 참된 자기를 아는 지식(*Notitia sui*)은 맹목적인 자기애와 가증한 [①] (*Philautia*)의 가면을 벗는 데서 출발한다고 선포한다. (2.1.2)
- 아담의 타락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과일 한 알의 식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대한 [②] (*Incredulitas*)이었다. (2.1.4)
- 아담은 창조주의 다스림을 받는 겸손한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가증한 [③] (*Superbia*)에 사로잡혀 반역을 저질렀다. (2.1.4)
- 고대 이단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가 단지 나쁜 본보기를 [④] (*Imitatio*)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했다. (2.1.6)
- 반면 칼빈과 성경(롬 5:12)은 아담이 전 인류의 뿌리요 대표이므로, 죄가 출생을 통한 혈통적 [⑤] (*Propagatio*)으로 온 인류에게 전염되었다고 증언한다. (2.1.6)
- 칼빈은 원죄(*Peccatum Originale*)를 가리켜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성이자 부패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⑥] 아래 처하게 만드는 것이라 정의했다. (2.1.8)
- 원죄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는데, 아담의 반역에 동참한 법적 유죄 판결인 [⑦] (*Reatus*)과 영혼의 샘 자체가 더러워진 [⑧] (*Pollutio*)이다. (2.1.8)
- 개혁신학의 첫 번째 기초석인 [⑨] (*Total Depravity*)은 영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Totus homo*)이 죄로 뒤틀려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음을 뜻한다. (2.1.9)
- 이러한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비참함에 직면하여 터져 나오는 거룩한 [⑩] (*Sancta Desperatio*)이야말로, 오직 십자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만을 붙들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이다. (2.1.1-3)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원죄란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성과 부패성이다. 그것은 영혼의 모든 부분들에 퍼져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온갖 ‘육체의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으킨다. ... 그러므로 아담이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죄가 그 영혼의 모든 부분들을 장악하였다. 천박한 욕망뿐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는 불신앙이 이성을 점령하였고, 교만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갔다. 영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의 물결이 넘쳐흐르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장 8-9절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펠라기우스주의 (Pelagianism)	로마 가톨릭 (반펠라기우스주의)	세속 현대 심리학	개혁주의 정통 성경관 (Calvin)
인간 본성의 상태	죄로 오염되지 않음 (무죄)	본성적 은사만 상실, 자유의지 건재	선천적으로 선함, 무한한 잠재력	전적으로 부패함 (<i>Totus Homo</i>)
아담의 죄의 영향	단순한 나쁜 본보기 (모방)	영혼의 하위 감성만 손상	환경적 상처, 사회 제도의 모순	혈통적 유전과 죄책의 전가 (유전)
구원의 길	인간 자신의 도덕적 노력과 결단	은혜의 주입 + 인간 공로의 협력	자존감 회복, 자기 긍정 훈련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12)
- 결단의 기도: “오 주님, 내 안의 헛된 자기도취와 교만을 깨뜨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도 없는 전적 파산자임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비참함을 깊이 깨달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평생토록 의지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2. 진노 | 7. 죄책 | 8. 오염 | 9. 전적 부패 (또는 전인적 부패) | 10. 절망

제20장: 사람의 비참한 현 상태: 의지의 자유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음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2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신적인 불꽃으로 칭송하며 인간에게 자율적인 [①] (*Liberum Arbitrium*)가 있다고 믿었으나, 이는 타락의 실상을 모르는 무지이다. (2.2.2-3)
- 칼빈은 ‘자유의지’라는 명칭이 인간에게 선악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헛된 [②] 을 심어주는 매우 위험한 용어라고 비판했다. (2.2.7)
-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악용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③] 를 동시에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었다고 단언했다. (2.2.8)
-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도록 외부에서 [④] (*Coactio*)을 받지는 않으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⑤] (*Necessitas*)으로 죄의 종노릇을 한다. (2.2.5-7)
- 타락으로 말미암아 믿음, 의, 거룩과 같은 [⑥] 은사(*Dona supernaturalia*)는 인간 영혼에서 완전히 박탈되었다. (2.2.12)
- 반면 이성, 판단력, 학예, 정치력과 같은 [⑦] 은사(*Dona naturalia*)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심각하게 부패하고 더러워졌다. (2.2.12)
- 불신자 철학자나 예술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눈부신 통찰과 학문은 하나님께서 사회의 자멸을 막기 위해 베푸신 성령의 [⑧] (*Gratia Generalis*)의 열매이다. (2.2.15-16)
- 그러나 하늘나라와 구원에 관한 신령한 진리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은 대낮의 햇빛 아래서 길을 잃은 박쥐와 같은 완전한 영적 [⑨] 상태에 갇혀 있다. (요 1:5, 고전 2:14, 2.2.18-19)
- 그러므로 인간의 묶인 의지를 해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⑩] 께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주권적 역사뿐이다. (겔 36:26, 빌 2:13, 2.2.27)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 은사들은 완전히 박탈되었으며, 자연적 은사들은 심각하게 부패하고 더러워졌다. ... 하늘나라와 구원에 관한 영적 진리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만 대낮의 햇빛 아래서 길을 잃고 해매는 박쥐보다 더 캄캄한 소경이다! 사도 요한이 장엄하게 선언한 바와 같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5). ... 인간의 의지는 죄의 멍에 아래 짓눌려 죄사슬에 묶여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유롭게 하실 때만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2권 제2장 12, 18절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스토아 철학 / 세속 인본주의	로마 가톨릭 (스콜라 신학)	알미니안주의 (Arminianism)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인간 의지의 상태	완전한 자율적 자유 의지	상처 입었으나 부분적 자유 잔존	선행은총으로 자유의지 회복됨	죄의 사슬에 묶인 노예 의지
구원에서의 역할	인간 스스로 운명 개척	주입된 은혜에 인간 의지가 협력	복음을 수락/거절할 최종 결정권	오직 성령의 주권적 해방과 중생
영적 진리 분별력	이성의 힘으로 덕을 실천	자연 이성으로 기초 진리 파악	인간의 이성적 수용 능력 인정	완전한 영적 소경 (요 1:5)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14)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자유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빛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묶인 의지를 풀어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1. 자유의지 | 2. 교만 (또는 자만) | 3. 자유 (또는 의지의 자유) | 4. 강제 | 5. 필연
2. 초자연적 | 7. 자연적 | 8. 일반 은총 | 9. 소경 (또는 흑암) | 10. 성령

제21장: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저주받을 것 뿐임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3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성경이 타락한 자연인을 가리켜 【①】 (*Caro*)이라 부를 때, 이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전인(*Totus homo*)을 뜻한다. (2.3.1)
-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온 인류를 향해 “【②】”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나님의 엄중한 기소장을 선포한다. (2.3.2)
- 불신자 사회에 나타나는 정직, 절제, 애국심과 같은 시민적 덕성은 인간 본성의 선함이 아니라 악의 폭발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③】 은혜(*Gratia cohibens*)의 선물이다. (2.3.3-4)
-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과 사랑 없이 자기 명예나 자기만족을 위해 행해진 불신자의 고결한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④】’ 죄(*Splendida peccata*)에 불과하다. (2.3.4)
- 인간은 죄를 지을 때 외부에서 【⑤】 을 받지 않고 자원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해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 (2.3.5)
- 회심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를 살짝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36장 26절 말씀대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⑥】 마음을 창조하시는 전적 기적이다. (2.3.6)
- 로마 가톨릭과 에라스무스가 주장한 신인 【⑦】 설(*Synergism*)은 구원의 최종 주도권을 인간에게 돌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훼손하는 오류이다. (2.3.7-8)
- 개혁신학은 구원이 인간의 협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100% 하나님의 주권적 【⑧】 사역(*Monergism*)임을 선포한다. (2.3.8-9)
-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⑨】 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확증한다. (2.3.9)
-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도덕성이나 종교적 봉사로 구원받았다는 일체의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⑩】 (*Soli Deo Gloria*)의 삶을 살아야 한다. (2.3.10-14)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방탕하고 파렴치하게 죄를 짓는 반면, 어떤 이는 정직하고 절제하며 고결한 삶을 산다. 그러나 그 차이가 인간 본성의 선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그것은 인간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당장 죄악으로 자멸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시고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Gratia cohibens)’의 역사이다! ...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대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 구원은 인간의 협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100% 주권적 단독 은혜뿐이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2권 제3장 3, 6절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도덕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로마 가톨릭 공로설	개혁주의 정통 (칼빈)
도덕적 선행의 근원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성	인간 자유의지의 완전한 결단	은혜 + 인간 공로의 협력	억제 은혜 & 성령의 새 창조
인간 의지의 역할	스스로 완전성에 도달	자력으로 구원 쟁취	주입된 은혜에 의지가 협력	전적 무능력, 오직 피동적 수납
구원의 최종 영광	인간의 숭고한 주체성	인간 자신의 도덕적 의	하나님과 인간의 분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Soli Deo Gloria)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10-12)
- 결단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내 본성에서 나온 것은 죄와 부끄러움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나를 지키셨고, 주님의 주권적인 단독 은혜가 돌 같은 내 마음에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평생토록 내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1. 육신 | 2. 의인 | 3. 억제 (또는 섭리적) | 4. 빛나는 | 5. 강제
2. 부드러운 (또는 새) | 7. 협동 | 8. 단독 | 9. 소원 | 10. 솔리 데오 글로리아 (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22장: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4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욥의 고난 사건을 통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 속에 갈대아 강도, 사탄, 그리고 [①] 이라는 세 가지 주체가 함께 역사함을 규명한다. (2.4.2)
- 강도들은 악한 탐욕으로, 사탄은 잔인한 시기로 행했으나,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②] 하시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 그 사건을 거룩하게 사용하셨다. (2.4.2)
- 욥은 재난 속에서 강도나 사탄을 탓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③] 시오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다. (욥 1:21)
- 로마 교회가 주장한 단순 [④] 설(*Nuda permissio*)은 하나님을 악의 세계를 무력하게 바라보시는 구경꾼으로 축소하는 비성경적 오류이다. (2.4.3)
-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악인을 정욕에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두렵고 공의로운 [⑤] 심판(*Iudicium Dei*)이다. (2.4.3-4)
-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⑥]’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 것은 사법적 유기의 명백한 증거이다. (2.4.4)
- 마니교의 [⑦] (*Dualism*)과 달리,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악의 군주가 아니며 하나님의 죄사슬에 묶인 도구에 불과하다. (2.4.5)
-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과 [⑧] 이 없이는 욥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었고,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2.4.5)
-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⑨] 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선포한다. (2.4.6)
-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⑩] 으로 바꾸셨다”(창 50:20)고 고백했듯이, 십자가는 악인의 악행까지 선으로 바꾸신 섭리의 절정이다. (2.4.2-8)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목적과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흠 없이 빛나고, 사탄과 인간의 악행은 마땅한 정죄를 받는다! 사탄과 악인들은 불의한 정욕으로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도구로 삼아 자신의 의로운 심판과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행위의 악함은 그것을 행하는 자의 사악한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결코 아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2권 제4장 2절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마니교 이원론 (Dualism)	세속 숙명론 (Fatalism)	로마 가톨릭 단순방 임설	개혁주의 섭리론 (Calvin)
악의 배후 세력	독립된 악의 신	맹목적인 기계적 운명	인간 자유의지의 일 탈	사탄과 인간의 악한 동기
하나님의 역할	악과 대등하게 투쟁	운명의 수레바퀴에 갇 힘	방관하고 허용할 뿐 임	주권적으로 악을 선으로 바 꾸심
성도의 실존적 태도	영적 공포와 불안	체념과 냉소	인간의 결단에 매달 림	절대적 평안과 찬양 (요 1:21)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그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1)
- 결단의 기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 세상의 악한 물결과 원수들의 횡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요셉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1. 하나님 | 2. 연단 (또는 시험) | 3. 여호와 | 4. 방임 (또는 허용) | 5. 사법적 (또는 공의로운)
2. 악령 | 7. 이원론 | 8. 허락 (또는 승인) | 9. 붓물 | 10. 선

제23장: 자유 의지를 변호하여 제기되는 혼한 반론들을 반박함 [학 생용 워크북]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5장 집중 강독 교재

I. 칼빈 원전 핵심 강독 빈칸 채우기 (10문항)

- 대적들은 죄가 필연적이라면 정죄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죄의 본질은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의 【①】 적인 정욕으로 범하는 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공정하다. (2.5.1)
-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 규명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②】 들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2.5.2)
- 동일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류 중에서 어떤 이가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③】 은혜 때문이다. (2.5.3)
-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권면과 책망은, 불택자에게는 핑계할 수 없는 공의의 증언이 되고, 택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④】 가 된다. (2.5.5)
- 사람의 능력을 율법의 계명으로써 재는 것은 치명적인 무지이며, 계명은 인간의 능력을 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무능과 죄를 비추는 【⑤】 이다. (2.5.6)
-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거스틴은 “주여,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⑥】 ”라고 기도했다. (2.5.7)
-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반반씩 힘을 합치는 【⑦】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단독적 은혜이다. (2.5.9)
- 대적들은 신명기 30장 11-14절을 자유의지의 근거로 삼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구절이 율법 준수 능력이 아니라 전파되는 【⑧】 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석했다. (2.5.12)
- 로마서 9장 16절(“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은 구원의 근거에서 인간의 모든 의지와 노력을 완전히 【⑨】 함을 보여준다. (2.5.17)
- 스콜라 학자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 10:30)에서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었다’는 표현을 악용했으나, 에베소서 2장 1절은 인류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완전히 【⑩】 존재임을 증언한다. (2.5.19)

II. 칼빈 원전 핵심 텍스트 정독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로서 재는 습관은 오래 전에 일반화되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습관은 율법에 대한 지독한 무지에서 생겨난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능력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율법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킬 능력이 있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 계명을 주셨다!” (『기독교 강요』 2.5.6)

III. 4대 신학 비교 분석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구분	펠라기우스주의	로마 가톨릭 (스콜라주의)	개혁주의 (존 칼빈)	복음적 결론
율법의 명령	명령하셨으니 인간은 온전히 행할 수 있다.	은혜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의지가 협력하여 지킨다.	계명은 인간 능력의 자가 아니라 무능을 폭로하는 거울이다.	절망을 통해 그리스도께 피함
상급과 공로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 지적 공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로(Meritum)와 은혜의 협력에 따른 보응	하나님은 자신의 은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오직 하나님의 부성적 자비 찬양
회심의 주체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결단	하나님과 인간의 신인협동 (Synergism)	오직 하나님의 단독적 재창조 사역 (Monergism)	거듭남은 100% 성령의 역사
성경 해석	성경 구절을 인간 중심으로 자의적 해석	눅 10:30 등의 역지 알레고리로 '절반의 생명' 주장	성경 전체의 통일성(롬 10장, 엡 2장) 안에서 바울적 조명	인간의 모든 자랑 분쇄

IV. 핵심 암송 구절 및 결단의 기도

- 핵심 암송 구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 결단의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는 선을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율법의 거울 앞에서 오직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의지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선을 행하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만을 붙잡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시고 평생토록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V. [학생용 정답 확인란]

[빈칸 정답]

- ① 자발 / ② 은사 / ③ 차별적 / ④ 도구 / ⑤ 거울
⑥ 명하소서 / ⑦ 신인협동(합작) / ⑧ 믿음 / ⑨ 배제 / ⑩ 죽은

제24장: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함

[학생용 워크북]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6장 집중 강독 교재

I. 칼빈 원전 핵심 강독 빈칸 채우기 (10문항)

1.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후, 창조 시에 부여받았던 탁월함과 고귀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크나큰 〔①〕 가 되었다. (2.6.1)
 2.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마땅한 멸망을 선고하시는 엄명한 〔②〕 으로 나타나신다. (2.6.1)
 3.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의 〔③〕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선포했다. (2.6.1)
 4. 하늘의 거룩한 유업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며, 독생자 그리스도의 몸에 〔④〕 을 받지 않은 자는 결코 자녀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2.6.1)
 5. 하나님께서는 옛 백성들에게도 〔⑤〕 를 떠나서는 결코 자비를 보이신 일도 없고, 은혜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일도 없다. (2.6.2)
 6. 이스라엘에 왕 제도가 세워지기 전, 사무엘의 모친 한나는 찬가를 통해 여호와께서 자기의 〔⑥〕 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라고 메시아를 예언했다. (2.6.2)
 7. 다윗 왕조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⑦〕 이었다. (2.6.2)
 8.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⑧〕 를 믿으라”고 하신 것은,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신앙이 굳게 설 수 없음을 뜻한다. (2.6.4)
 9. 교부 이레나이우스는 무한하신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유한하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의 지성이 압도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분량에 맞추신 〔⑨〕 이라고 설명했다. (2.6.4)
 10.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자랑하는 유대인, 무슬림,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공물을 맛보지 못하며 그분을 〔⑩〕 로 모실 수 없다. (2.6.4)
-

II. 칼빈 원전 핵심 텍스트 정독

“하나님께서서는 중보자를 떠나서는 결코 옛 백성들에게 자비를 보이신 일도 없고, 그들에게 은혜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일도 없다. 율법에 나타나 있는 희생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는 속죄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죄의 용서를 찾지 못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교회의 구원을 노래할 때마다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신뢰와 소망의 깃발이 높이 펴려였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없으며, 그의 영원한 자비의 품에 안길 수 없다!” (『기독교 강요』 2.6.2, 4)

III. 4대 종교 및 신학 비교 분석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중보자

구분	자연신학 / 이신론	유대교 및 이슬람	로마 가톨릭	개혁주의 (존 칼빈)
하나님 인식	자연 관찰과 이성적 사색으로 신을 인식	중보자 예수 없이 유일 신을 직접 경배	그리스도를 인정하나 마리아와 성인의 중보 혼합	오직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앎
타락의 결과	인간 이성의 건재함 신뢰	율법 준수로 의에 도달 가능하다고 믿음	타락했으나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공로가 남음	전적 타락으로 창조주 지식 무용화, 오직 정죄만 받음
구약의 해석	도덕적 우화나 민족 역사로 격하	율법의 문자적 행위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봄	구약의 사제 제도를 교황 제도와 미사로 계승	구약의 모든 제사와 왕국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
구원의 확신	불확실한 도덕적 낙관론	율법 준수의 노력에 매인 불안한 신앙	연옥과 사제 중보에 매인 조건부 구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절대적 안식

IV. 핵심 암송 구절 및 결단의 기도

- 핵심 암송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 결단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보내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도덕과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단 일 초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모시며 평생토록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V. [학생용 정답 확인란]

[빈칸 정답]

- ① 수치 / ② 재판관(심판관) / ③ 미련한 / ④ 접붙임 / ⑤ 중보자
⑥ 기름 부음 / ⑦ 형상(모형) / ⑧ 나 / ⑨ 신적 적응(맞추심) / ⑩ 아버지

[제25강 학생용 빈칸교재] 모세 율법의 목적과 3중 용도

[부제] 정죄의 거울, 사회적 억제, 그리고 성도의 삶의 거룩한 규범 —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자 삶의 등불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7장 |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 / 소그룹: ____ - 제출일시: 2026. ____ / 확인: 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율법의 기원과 불가능성의 역설 (2.7.1~5)

- 칼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구약 백성을 감옥에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①]의 소망을 복돋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원인은 율법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②] (Infirmity carnalis)의 무능력 때문입니다(롬 8:3).
- 신명기 27장 26절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③]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2. 율법의 제1용도와 제2용도 (2.7.6~11)

- 율법의 제1용도는 인간의 죄와 추악함을 비추어 주는 [④] (Speculum)의 역할입니다.
-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⑤] (초등교사, Paedagogus)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 율법의 제2용도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악인들의 난폭함을 억제하여 사회 질서를 보존하는 [⑥] (재갈, Fraenum)의 역할입니다.

3. 율법의 제3용도와 성도의 삶 (2.7.12~17)

- 칼빈은 거듭난 성도에게 율법이 삶의 거룩한 규범이 되는 제3용도(Tertius usus legis)야말로 율법의 가장 본래적인 [⑦] (Praecipuus usus)라고 역설했습니다.

- 다.
- "은혜를 받았으니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었다"며 방종한 삶을 정당화하는 자들을 [⑨] (Antinomians)론자라고 부릅니다.
- 구약의 제사나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폐지되었으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⑩] (Moral Law)은 영원토록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 지속됩니다.

II. 원전 핵심 강독 정보 (Primary Source Reading)

존 칼빈 『기독교 강요』 2.7.7, 2.7.12 정본 발췌

“사람이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에 묻은 얼룩과 때를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무능력과 뼈아픈 죄악과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보게 된다. 그러나 율법의 제3용도야말로 율법의 본래적 목적에 가장 가깝고,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율법의 주된 용도이다! 성도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명확히 배우며, 율법은 우리 안의 나태함을 채찍질하여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성도는 이제 기쁨으로 율법을 순종한다!”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 매트릭스 (4-Way Comparative Table)

비교 항목	개혁주의 율법관 (Calvin)	루터파 율법관 (Luther)	중세 펠라기우스 / 율법주의	율법폐기론 (Antinomianism)
율법의 핵심 목적	정죄(제1용도) + 성도의 삶의 규범(제3용도 강조)	주로 죄의 폭로와 정죄 (제1용도 집중)	공로를 쌓아 스스로 의를 얻는 구원의 수단	신약 시대에는 완전히 무의하고 폐기됨
성도와 율법의 관계	정죄는 벗었으나 삶의 즐거운 지침으로 사랑함	율법과 복음의 첨예한 갈등과 긴장	율법의 조문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과 명에	율법과의 모든 관계 단절, 방종의 위험

비교 항목	개혁주의 율법관 (Calvin)	루터파 율법관 (Luther)	중세 펠라기우스 / 율법주의	율법폐기론 (Antinomianism)
제3용도의 위치	율법의 가장 으뜸가는 '주된 용도'	인정하나 칼빈만큼 전면 부각하지 않음	제3용도가 아니라 구원 조건으로 변질	제3용도 자체를 완전히 거부함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발적·감사적 순종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누림	공로주의적 형식과 두려움	율법 없는 도덕적 방종과 무책임

Ⅳ. 소그룹 심화 나눔 및 영적 성찰 (Application Questions)

1. [거울과 십자가]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의 무능력과 죄인 됨을 깊이 자각하고, 오직 십자가 예수만을 붙들었던 회심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2. [제3용도의 기쁨] 십계명과 성경의 교훈들을 대할 때, 억지로 지켜야 하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안내서'로 누리고 있습니까?
3. [방종 경계]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는 무율법주의적 나태함이 내 일상이나 영적 태도에 슬그머니 침투해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Ⅴ. 금주의 암송 말씀 및 결단 기도

암송 구절: 갈라디아서 3:24, 시편 119:105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 3:24)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결단의 기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비참한 죄악을 보게 하시고, 몽학선생 된 율법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으로 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율법의 무서운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은혜를 핑계로 죄와 타협하는 어리석은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처럼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답 안내 (Answer Key)]

① 구원 | ② 육체 | ③ 저주 | ④ 거울 | ⑤ 초등교사(몽학선생) | ⑥ 재갈(굴레) | ⑦ 주된 용도 | ⑧ 빛 | ⑨ 율법폐기
(무율법주의) | ⑩ 도덕법

[제26강 학생용 빈칸교재] 도덕법(십계명)의 해설

[부제] 마음의 내적 순결과 사랑의 완성 — 두 돌판에 새겨진 거룩한 삶의 원리와 십계명 강해의 대원칙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8장 |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 / 소그룹: ____ - 제출일시: 2026. ____ / 확인: 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십계명 서문과 3대 해석 원칙 (2.8.1~15)

- 십계명의 서문(출 20:2)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선포하며,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의 거룩한 [①]의 규범임을 보여줍니다.
- 칼빈은 인간 법관과 달리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의 가장 은밀한 동기와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②] (Lex spiritualis) 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 한 가지 극단적인 죄악을 금지할 때 그 반대되는 적극적 선을 행하도록 명령하신다는 수사학적 원리를 [③] (Synecdoche)이라고 부릅니다.
- 십계명의 제1돌판(1~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④] (Pietas)을, 제2돌판(5~10계명)은 이웃을 향한 [⑤] (Caritas)과 공의를 다룹니다.

2. 제1돌판: 하나님을 향한 경건 (2.8.16~34)

- 제1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다른 모든 [⑥]을 배격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제2계명은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 [⑦]으로 만들어 예배하는 모든 시도를 엄히 금지합니다.
- 제3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맹세나 이기적 욕망을 위해 [⑧]되게 부르지 말 것을 명합니다.
-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되, 육신의 일을 쉬고 영적 안식을 누리며 공적 [⑨]에 참여할 것을 명합니다.

- 칼빈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마음속에 품은 분노와 미움까지 금하시고,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⑩] 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했습니다.
- 제10계명은 외적 행동 이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모든 악한 [⑪] (Concupiscentia)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것을 명합니다.
-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⑫] 이니라"고 선포했습니다.
-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⑬] (Telos, 마침)이 되셨습니다(롬 10:4).

II. 원전 핵심 강독 정보 (Primary Source Reading)

존 칼빈 『기독교 강요』 2.8.6, 2.8.9 정본 발췌

“인간 법관은 겉으로 드러난 손발의 행동만을 재판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율법 또한 영적이다! 하나님은 육체의 겉모양뿐 아니라 영혼의 가장 은밀한 골방, 마음의 숨은 생각과 은밀한 욕망까지 꿰뚫어 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향해 품은 미움은 곧 살인이요, 음욕을 품은 눈길은 곧 간음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죄를 금지하실 때, 그것은 그 죄의 반대편에 있는 거룩한 선을 행하라는 적극적 명령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지키라는 것이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네 재물로 이웃을 구제하라는 거룩한 사랑의 부르심이다!”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 매트릭스 (4-Way Comparative Table)

비교 항목	개혁주의 십계명관 (Calvin)	유대교 바리새적 문자주의	세속적 실정법관	율법폐기론적 무관심
적용 범위	마음의 은밀한 생각과 내면 전체	겉으로 드러난 외적 행동과 조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	신약 성도에게는 무의미하다고 방치
명령의 성격	제유법: 부정적 금지 + 적극적 선행	조문에 적합한 금지 사항만 준수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무죄	모든 계명적 의무로부터의 이탈

비교 항목	개혁주의 십계명관 (Calvin)	유대교 바리새적 문자 주의	세속적 실정법관	율법폐기론적 무관심
두 돌판의 관계	경건(하나님 사랑)이 도덕의 뿌리임	형식적 제사로 도덕적 타락을 가림	제1돌판은 배제하고 사회 규범만 인정	양쪽 돌판 모두를 경시함
궁극적 지향점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와 사랑	자기 의의 과시와 교만한 공로주의	사회 질서 보존과 국가 통치	통제 없는 육체적 자유와 방종

Ⅳ. 소그룹 심화 나눔 및 영적 성찰 (Application Questions)

- [마음의 법]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음의 영역으로 확장할 때, 내 가슴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 [적극적 나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제유법적 요구대로, 내 시간과 물질을 가난한 이웃과 교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 [탐심 극복] 제10계명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탐심(비교의식, 재정적 불안, 인정욕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빌립보서 4장처럼 자족하는 믿음을 결단해 봅시다.

Ⅴ. 금주의 암송 말씀 및 결단 기도

암송 구절: 로마서 13:10, 로마서 10:4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10)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롬 10:4)

[결단의 기도]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며 거룩하신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며 내면의 부패와 탐심을 숨겨왔던 우리의 바리새적 외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의 거룩한 거울 앞에서 우리의 비참한 죄악을 정직하게 자복하게 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제유법의 삶을 살아가게 하사, 미움 대신 용서를 베풀고, 탐욕 대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답 안내 (Answer Key)]

① 은혜 | ② 영적인 | ③ 제유법 | ④ 경건 | ⑤ 사랑 | ⑥ 우상 | ⑦ 형상 | ⑧ 망령 | ⑨ 예배 | ⑩ 보호 | ⑪ 탐심 | ⑫ 완성 | ⑬ 마침(완성)

[제27장 학생용 빈칸교재] 율법의 그림자에서 복음의 찬란한 빛으로

[부제] 구약의 희미한 모형을 넘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린 구속의 찬란한 영광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9장 |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학습자 정보 - 성명: ____ / 소그룹: ____ - 제출일시: 2026. ____ / 확인: ____

I. 강의 핵심 가이드 및 키워드 채우기 (Guided Notes)

1. 율법의 그림자와 복음의 실체 (2.9.1~2)

- 칼빈은 구약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의 제사와 절기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①] (Umbra) 이자 모형(Typus)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②] (Veritas)이 아니니라"고 증언 합니다.
-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노인 [③] 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눅 2:30)라며 그림 자의 시대가 끝나고 실체가 도래했음을 찬양했습니다.

2. 복음의 정의와 성취 (2.9.2~3)

- 헬라어 '에우안겔리온'에서 유래한 복음(Evangelium)의 원래 뜻은 [④] (Bona et laeta nuntiatio)입니다.
- 넓은 의미의 복음은 구약 전체에 스며 있는 구원의 [⑤] 들을 뜻하며, 좁은 의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 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⑥] 를 뜻합니다.
-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이 [⑦] 위졌습니다(눅 24:32).

3. 마르시온 이단 분쇄와 신약 성도의 특권 (2.9.4~5)

- 구약의 창조신과 신약의 구속주가 서로 다른 신이라며 구약을 폐기하려 했던 고대의 대표적 이단은 [⑧] (Marcion)주의입니다.

포했습니다.

-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⑩]들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신약의 제자들이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성도의 영적 특권을 확증하셨습니다.

II. 원전 핵심 강독 정보 (Primary Source Reading)

존 칼빈 『기독교 강요』 2.9.1, 2.9.2 정본 발췌

“구약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 아래서도 그리스도는 알려지셨으나, 오직 복음 안에서 비로소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과 성도들도 율법의 제사와 예언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실체가 아니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친히 오심으로써 그 모든 그림자가 걷히고 대낮의 태양처럼 활짝 열렸다! 구약의 복음이 장차 오실 구주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신약의 복음은 이미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에 대한 선포이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찬란한 영광의 차이가 있다!”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 매트릭스 (4-Way Comparative Table)

비교 항목	개혁주의 복음관 (Calvin)	마르시온주의 (Marcionism)	유대교 랍비주의	세속적 성경 회의론
구약과 신약의 관계	언약의 단일성: 그림자(약속)와 실체(성취)	구약 악신 vs 신약 선신의 완전한 단절	구약 율법만이 영원하며 신약은 왜곡임	고대 근동의 설화와 신화의 모음집
그리스도의 위치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유일한 중보자	구약과 전혀 무관하게 갑자기 나타난 신	거짓 메시아, 나사렛 이단 종파의 수장	실패한 유대교 종말론적 혁명가
율법의 제사의 의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가리키는 모형	무가치한 피의 제사, 폐기 대상	율법의 의식 자체가 공로를 줌	고대 종교의 원시적 희생 제의
성도의 영적 태도	찬란한 정오의 복음 빛 아래서 드리는 감사	구약을 혐오하고 반유대주의적 배격	조문 준수를 통한 불안한 율법주의	도덕적 상대주의와 영적 무관심

Ⅳ. 소그룹 심화 나눔 및 영적 성찰 (Application Questions)

1. [그림자와 실체] 구약의 제사와 예언들이 실은 십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는 사실이 구약 성경을 읽는 내 시각에 어떤 신선한 변화를 줍니까?
 2. [시므온의 고백] 노인 시므온처럼 내 인생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족합니다"라는 참된 영적 자족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3. [엠마오의 뜨거움]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내 영혼 속에서 복음의 감격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던 최근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Ⅴ. 금주의 암송 말씀 및 결단 기도

암송 구절: 골로새서 2:17, 누가복음 2:29~30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 2:17)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눅 2:29-30)

[결단의 기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희미한 그림자와 촛불의 시대를 지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찬란한 태양 빛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도 간절히 보기를 사모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보고 듣는 특권을 받았사오니, 그 은혜의 무게에 합당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시므온처럼 주님 품에 안겨 평안과 영생의 확신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답 안내 (Answer Key)]

- ① 그림자 | ② 형상(실체) | ③ 시므온 | ④ 기쁜 소식 | ⑤ 약속 | ⑥ 성취 | ⑦ 뜨거 | ⑧ 마르시온 | ⑨ 그리스도 | ⑩ 의인

[제28강 학생용 빈칸교재]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 (동일한 은혜언약)

부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 구약 성도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었음 (Book 2, Ch. 1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0장 마스터클래스 워크북

학습자 정보 (Student Profile)

- 성명:

- 소그룹/교구:

- 제출일자:

202년 월 일

- 확인(인도자 서명):

I. 핵심 강의 빈칸 채우기 (Guided Notes 10문항)

존 칼빈은 구약과 신약이 경륜의 외적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 본질과 실체(substantia)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동일한 단 하나의 [①] 이라고 선언한다. (2.10.1)

칼빈이 제시한 구약과 신약의 본질적 일치를 증명하는 제1기둥은, 구약 성도들이 사모했던 언약의 궁극적 목적이 현재의 변영이 아니라 [②] 이었다는 사실이다. (2.10.1)

구약의 언약 역시 인간의 율법 준수나 행위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③] 에 근거하여 체결되었다. (2.10.2)

구약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④] 였다. (2.10.2)

창세기 17:7에서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2:32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⑤] 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부활과 영생을 확증하셨다. (2.10.7)

조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도 영구한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평생을 텐트에 거주하며 자신들이 땅에서 [⑥] 임을 고백하였다. (2.10.10)

히브리서 11:19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⑦] 신앙 때문이었다. (2.10.11)

옴은 극심한 고난과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나의 [⑧]]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부활을 확신했다. (2.10.19)

16세기 [⑨] 와 세르베투스(Severinus)는 구약 백성을 마치 배만 채우는 짐승처럼 취급하며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었다고 모독했다. (2.10.20)

칼빈은 구약에 나타난 토지의 소산과 장수 같은 물질적 약속들은 성도들의 유아적 연약함을 배려하여 영원한 하늘 기업을 미리 맛보게 하신 거룩한 [⑩] 이었다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2.10.20)

II. 1차 사료 심층 강독 (Primary Source Reading)

칼빈의 라틴어 원전 강독 (기독교 강요 2.10.20)

"하나님께서 옛 백성들에게 내세의 소망 대신에 지상적 축복들을 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상적 축복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늘의 영원한 기업으로 고양시키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한 유아적 상태를 감안하시어, 눈에 보이는 지상적 은혜들을 영적 복락의 거울이자 보증(speculum ac pignus)으로 삼으셨던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늘 본향의 그림자였고, 다윗 왕국의 변영은 메시아 영원한 통치의 예표였다."

묵상 질문: 당신은 일상에서 누리는 건강, 가정, 재정적 축복을 '목적 그 자체'로 우상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 기업을 가리키는 '은혜의 보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III. 구약과 신약의 언약 통일성 비교 매트릭스

비교 영역	구약 성도 (옛 언약 아래)	신약 성도 (새 언약 아래)	신학적 일치점 및 의의
언약의 본질	은혜언약 (Foedus Gratiae)	은혜언약 (Foedus Gratiae)	본질(Substantia)의 완전한 동일성
구원의 근거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중보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 완성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영생의 소망	부활과 하늘 본향 사모 (히 11장)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 사모	영생의 불멸성 (Immortalitas)
제시의 형태	모형, 그림자, 물질적 보증	실체, 성취, 성령의 직접적 빛	경륜의 발전 (Administratio)

IV. 이번 주 암송 요절 및 결단의 기도

[핵심 암송 요절] 히브리서 11:13, 16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 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결단의 기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언약으로 오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썩어질 세상의 물질적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욥처럼 영원한 하늘 본향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V. 정답 및 자가 채점표 (Answer Key)

(주의: 스스로 학습을 완료한 후 정답을 대조해 보십시오)

은혜언약 (foedus gratiae)

영생 (불멸성, immortalitas)

은혜 (sola gratia)

예수 그리스도 (Christo Mediatore)

살아 있는 자

나그네와 행인 (외국인)

부활

대속자 (구속자, Goel)

재세례파 (Anabaptists)

거울이자 보증 (*speculum ac pignus*)

[제29강 학생용 빈칸교재]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그림자와 실체, 복음의 자유)

부제: 모형의 시대를 넘어 성령의 풍성함으로 — 새 언약의 영광과 복음의 자유 (Book 2, Ch. 11)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1장 마스터클래스 워크북

학습자 정보 (Student Profile)

- 성명:

- 소그룹/교구:

- 제출일자:

202 년 월 일

- 확인(인도자 서명):

I. 핵심 강의 빈칸 채우기 (Guided Notes 10문항)

존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언약의 본질(substantia)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집행하고 전달하시는 외적 [①]에 있다고 규정한다. (2.11.1)

제1차이점에 따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같은 지상적 축복의 모형을 사용하셨으나, 신약에서는 곧바로 영원한 [②]의 유업을 밝히 드러내셨다. (2.11.1)

제2차이점에서 구약의 희생 제사와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멀리서 가리키는 거룩한 [③]였으나, 신약에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본체(corpus)로 오셔서 모든 모형을 완성하셨다. (2.11.4)

고린도후서 3:6에서 바울은 옛 언약의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④]인 반면,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⑤]이라고 선언한다. (2.11.7)

예레미야 31:33의 새 언약의 예언대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성도의 부드러운 [⑥]에 직접 새겨 넣으신다. (2.11.8)

제4차이점에 따르면, 구약 성도들은 아직 아동기에 있었기에 율법의 엄격한 규율 아래서 [⑦]의 영으로 훈련 받았으나,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 (2.11.9)

로마서 8:15에 따르면, 신약 성도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⑧]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른다. (2.11.9)

제5차이점에 따르면, 구약의 언약은 오직 [⑨]민족 하나에게만 국한되었으나, 신약의 복음은 온 세상 만국 만민에게로 우주적으로 확장되었다. (2.11.11)

에베소서 2:14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원수 된 [⑩]을 자기 육체로 완전히 허무셨다. (2.11.12)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인류의 성장 단계와 계절에 맞추어 지혜롭게 처방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적 [⑪]의 결과라고 변증한다. (2.11.13)

II. 1차 사료 심층 강독 (Primary Source Reading)

칼빈의 라틴어 원전 강독 (기독교 강요 2.11.13)

"하나님께서 왜 옛적에는 율법의 그림자와 의식들로 백성을 양육하시다가, 이제는 복음의 밝은 빛 아래서 아들의 자유를 주시는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거나 변덕을 부리셨다고 불경건하게 비난한다. 그러나 이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치와 같다. 아버지는 어린 자녀에게는 유아적 방식으로 규율을 정하고 인도하지만, 그 자녀가 성년이 되면 종의 멍에를 벗기고 자유로운 상속자로 대우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토록 불변하시되, 인간의 영적 미성숙과 성장의 계절(temporum opportunitas)에 가장 알맞은 경륜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묵상 질문: 당신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종의 멍에'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부여 주시는 '아바 아버지'의 자유로 누리고 있습니까?

III. 구약과 신약의 5대 차이점 비교 매트릭스

구분	구약 (옛 언약 아래)	신약 (새 언약 아래)	신학적 의미 및 성도의 영적 유익
제1차이 (소망의 지평)	가나안 땅, 지상적 축복의 모형	하늘 영생의 직접적 계시	현세 기복주의 극복, 천국 소망 확립
제2차이 (계시의 형태)	희생 제사, 성막, 의식의 그림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실체 본체	단번의 영원한 대속 완성 (Tetelestai)
제3차이 (사역의 성격)	돌판의 문자 (정죄와 죽음의 직분)	마음에 새긴 성령 (생명과 의의 직분)	성령의 내주와 자원하는 순종
제4차이 (성도의 정서)	미성숙한 아동기의 종의 두려움	양자의 영 안에서 누리는 아들의 자유	담대한 은혜의 보좌 나아감 (Abba Father)
제5차이 (언약의 범위)	이스라엘 한 민족의 테두리	온 세상 모든 족속과 열방으로 확장	막힌 담의 붕괴, 세계 선교의 기초

IV. 이번 주 암송 요절 및 결단의 기도

[핵심 암송 요절] 로마서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결단의 기도] 구원의 풍성한 계절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의식과 그림자를 종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죄와 율법의 두려움에 매인 종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양자의 영 안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성령 안에서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V. 정답 및 자가 채점표 (Answer Key)

(주의: 스스로 학습을 완료한 후 정답을 대조해 보십시오)

경륜의 방식 (경륜의 형태, administratio)

하늘 영생 (영적 유업)

그림자 (예표, 모형, *umbrae*)

문자, 영 (성령)

마음판 (심비)

종 (노예, 후견인 아래)

양자 (아들)

이스라엘 (유대)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

교육적 경륜 (섭리, *divina pedagogia et oeconomia*)

[제30강 학생용 빈칸교재]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음 (성육신의 필연성)

부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구속자 —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는 성육신의 신비 (Book 2, Ch. 12)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2장 마스터클래스 워크북

학습자 정보 (Student Profile)

- 성명: _____
- 소그룹/교구: _____
- 제출일자: 202 년 월 일
- 확인(인도자 서명): _____

I. 핵심 강의 빈칸 채우기 (Guided Notes 10문항)

존 칼빈은 성육신의 필연성이 공허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①] 과 기뻐하신 뜻에서 비롯된 거룩한 필연성이라고 선언한다. (2.12.1)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한한 심연을 만들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신비를 [②]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라고 부른다. (2.12.1)

디모데전서 2:5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참 사람이신 [③] 한 분 뿐이다. (2.12.1)

하나님의 공의는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바로 그 [④] 이 율법에 순종하고 죄의 형벌인 사망을 당할 것을 요구했기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참 인간이 되셔야 했다. (2.12.3)

히브리서 2:14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⑤] 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2.12.3)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무게를 결코 감당할 수 없었기에, 죽음을 삼켜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중보자는 반드시 참 [⑥] 이셔야 했다. (2.12.2)

칼빈이 극찬한 종교개혁의 위대한 교리인 [⑦] (*Admirabile Commercium*)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써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속의 신비를 뜻한다. (2.12.2)

16세기 루터교 신학자 [⑧] 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을 것이라는 헛된 사변을 주장하여 칼빈의 준엄한 반박을 받았다. (2.12.4)

성경은 일관되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신 유일한 목적이 오직 [⑨] 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증언한다 (딤후 1:15, 눅 19:10). (2.12.5)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겪으셨기에, 히브리서 4:15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통을 깊이 [⑩] 하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신다. (2.12.2)

II. 1차 사료 심층 강독 (Primary Source Reading)

칼빈의 라틴어 원전 강독 (기독교 강요 2.12.2)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실로 놀랍고 복된 거룩한 교환(*admirabile commercium*)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함께 사람이 되셨으니, 이는 사람의 아들들인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강생(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을 취하셨고, 자신의 불멸성을 우리에게 거저 넘겨주셨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신적 권능을 입혀주셨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짊어지심으로써 자신의 찬란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덮어주셨다!"

묵상 질문: 당신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의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놀라운 교환'의 감격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III. 성육신의 필연성과 양성의 기능 매트릭스

구분	참 사람 (<i>Verus Homo</i>)	참 하나님 (<i>Verus Deus</i>)	위격적 연합 (<i>Unio Hypostatica</i>)
구속사적 필연성	범죄한 인간 본성의 대리 형벌	무한한 진노 감당 및 사망 정복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
율법과의 관계	인간으로서 율법의 온전한 순종	율법의 제정자로서의 거룩한 권위	율법의 마침과 영원한 의의 획득
수난과 부활	십자가에서 실제 살과 피를 흘림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 승리	피 흘림의 무한한 대속 가치 확립
성도에게 주는 위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깊이 체휼함	전능하신 권능으로 영원히 보존함	거룩한 교환 (<i>Admirabile Commercium</i>)

IV. 이번 주 암송 요절 및 결단의 기도

[핵심 암송 요절] 디모데전서 2:5 & 히브리서 2:14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후 2:5)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 2:14)

[결단의 기도]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의 말구유와 십자가로 내려오신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비참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사 영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주신 '놀라운 교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체휼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V. 정답 및 자가 채점표 (Answer Key)

(주의: 스스로 학습을 완료한 후 정답을 대조해 보십시오)

작정 (영원한 작정, 하늘의 작정, *decretum*)

임마누엘 (*Immanuel*)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인간 본성 (인간, 사람)

마귀 (사탄)

하나님 (*Deus*)

거룩한 교환 (놀라운 교환, *Admirabile Commercium*)

오시안더 (Andreas Osiander)

죄인 (잃어버린 자)

체휼 (동정, 공감)

[제31강 학생용 빈칸교재] 그리스도께서 인간 본성의 참 본질을 취하셨습니다 (참된 인성과 가현설 박멸)

부제: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씨 —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취하사 시험을 받으신 구주 (Book 2, Ch. 1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3장 마스터클래스 워크북

학습자 정보 (Student Profile)

- 성명: _____
- 소그룹/교구: _____
- 제출일자: 202 년 월 일
- 확인(인도자 서명): _____

I. 핵심 강의 빈칸 채우기 (Guided Notes 10문항)

교부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취하지 않은 것은 [①]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참 인성의 중요성을 천명했다. (2.13.1)

성경은 창세기 3:15에서 메시아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 [②] '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최초로 예언하였다. (2.13.1)

로마서 1:3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③] '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증언한다. (2.13.1)

고대 영지주의 마르시온파와 마니교는 그리스도께서 실제 육체를 취하지 않고 유령처럼 겉모양만 흉내 내셨다는 [④] (Docetism)을 주장하여 교회를 미혹했다. (2.13.1)

16세기 [⑤] 와 메노 시몬스는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살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수도관을 통과하는 물처럼 단지 마리아를 통과만 했다는 '천상적 육체설'을 주장했다. (2.13.2)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살에서 나지 않고 하늘의 육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다면,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나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⑥] '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13.2)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에도 아담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으신 비결은, 잉태의 순간 마리아의 본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⑦] '의 초자연적 성결 사역 덕분이다. (2.13.4)

누가복음 1:35에 따르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⑧] '이라 일컬어지리라'고 선포했다. (2.13.4)

히브리서 2:14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⑨] '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2.13.2)

히브리서 4:15에 따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며 [⑩] '은 없으신 분이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체휼(동정)하신다. (2.13.4)

II. 1차 사료 심층 강독 (Primary Source Reading)

칼빈의 라틴어 원전 강독 (기독교 강요 2.13.2)

"만약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늘에서 내려왔거나 허공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성경이 그분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가지'라고 부른 모든 약속들은 거짓말이 되고 만다! 대적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마치 수로를 통과하는 물처럼 지나가셨다고 헛되이 지껄인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여자의 몸을 단지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셨다(factum ex muliere, 갈 4:4)'고 명백히 선언한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흠의 본성을 취하셨기에 우리의 참된 형제가 되셨으며, 바로 그 육체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묵상 질문: 예수님이 당신과 똑같은 피와 살을 지니셨고, 배고픔과 슬픔과 죽음의 공포를 아신다는 사실이 오늘 당신의 질병과 고난 속에서 어떤 실제적인 위로가 됩니까?

III. 참 인성의 정통 교리와 이단 사설 대조 매트릭스

구분	이단 사설의 주장 (오류)	정통 개혁신학의 성경적 진리	구속사적 의미 및 결론
영지주의 가현설	육체는 악하므로 유령/환영에 불과함	마리아에게서 취하신 실제 살과 피 (히 2:14)	실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음
아폴리나리스주의	인간의 영혼 대신 신적 로고스가 결합	참된 인간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취하	인간의 영혼과 육체 전체를 구원 하심
재세례파 천상육체	하늘 육체로 마리아를 통과만 함	아브라함과 다윗 혈통의 실제 상속자	우리과 한 피를 나눈 참된 맏형이 되심
원죄 오염 반론	마리아에게서 났으므로 원죄를 가짐	성령의 초자연적 성결로 죄 없이 잉태	흠 없는 순결한 대속의 어린양 완성

IV. 이번 주 암송 요절 및 결단의 기도

[핵심 암송 요절] 히브리서 2:17 & 히브리서 4:15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 2:17)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결단의 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된 인간의 살과 피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인생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가 없으셨던 주님을 본받아, 오늘도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순결한 제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V. 정답 및 자가 채점표 (Answer Key)

(주의: 스스로 학습을 완료한 후 정답을 대조해 보십시오)

- 구원
- 여자 (여인의 후손)

다윗

가현설 (*Docetism*)

재세례파 (Anabaptists)

대속자 (구속자, 형제)

성령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마귀 (사탄)

죄

[제32강 학생용 빈칸교재] 중보자의 두 본성이 한 위격을 이룸 (위격적 연합과 칼케돈 신경)

부제: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 — 성경의 속성 교통과 칼빈의 엑스트라 (Book 2, Ch. 1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2권 제14장 마스터클래스 워크북

학습자 정보 (Student Profile)

- 성명: _____
- 소그룹/교구: _____
- 제출일자: 202 년 월 일
- 확인(인도자 서명): _____

I. 핵심 강의 빈칸 채우기 (Guided Notes 10문항)

존 칼빈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라는 서로 다른 두 실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직 한 사람을 이루듯,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이 결합하여 오직 한 [①] 을 이루신다고 설명한다. (2.14.1)

주후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질 없이, [②] 없이, 분리 없이 결합되었다고 선포하였다. (2.14.1)

칼빈이 제시한 기독교론 성경 해석 제1분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 8:58)"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③] 에만 고유하게 속하는 본문들이다. (2.14.2)

기독교론 성경 해석 제2분류는 피곤하심, 시장하심, 죽으심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④] 에만 속하는 연약함을 증언하는 본문들이다. (2.14.2)

[⑤] (*Communicatio Idiomatum*)이란 두 본성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한 위격 안에서 신성의 속성과 인성의 속성이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한 인격에 함께 돌려지는 원리를 말한다. (2.14.2)

사도행전 20:28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⑥] 로 사셨다"고 선언한 것은 속성의 교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적 용례이다. (2.14.2)

개혁주의 신학의 위대한 표지인 [⑦] (*Extra Calvinisticum*)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도 그분의 신성은 육체에 갇히지 않고 온 우주를 채우시며 통치하셨다는 진리이다. (2.14.4)

5세기 이단 [⑧] 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지나치게 분리하여 예수님 안에 두 개의 위격(인격)이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다가 정죄를 받았다. (2.14.5)

5세기 이단 [⑨] 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버렸다고 주장함으로써 두 본성을 혼합시키는 일성론의 오류에 빠졌다. (2.14.5)

골로새서 2:9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는 [⑩] 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2.14.4)

II. 1차 사료 심층 강독 (Primary Source Reading)

칼빈의 라틴어 원전 강독 (기독교 강요 2.14.4)

"우리가 선포하는 이 거룩한 신비를 깊이 묵상해 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나 하늘을 버리신 것이 아니요, 기이한 방식으로 처녀의 태중에 잉태되사 지상에 거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그러하셨듯이 온 우주를 자신의 신성으로 가득 채우고 계셨다! 그분의 신성은 유한한 육체 속에 갇히거나 제한될 수 없으셨다. 그분은 지상에서 참된 인간의 육체 안에서 온전히 사역하시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무한한 신적 권능으로 만유를 붙들고 다스리셨던 것이다!"

묵상 질문: 예수님이 2천 년 전 팔레스타인에 갇힌 분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당신의 기도와 삶에 어떤 위엄과 평안을 주니까?

III. 위격적 연합 기독교론 정통과 이단 비교 매트릭스

구분	위격 (Person)	본성 (Nature)	핵심 오류 및 정통 교리적 판단
정통 개혁신학 (칼케돈)	오직 한 위격 (<i>Una Persona</i>)	참 신성과 참 인성 (<i>Duae Naturae</i>)	혼합·변질·분열·분리 없음 (칼케돈 4대 기둥)
네스토리우스주의	두 위격으로 쪼갬 (Two Persons)	두 본성의 느슨한 기계적 결합	위격의 분열, 중보자의 유일성 파괴
유태케스주의 (일성론)	한 위격 (<i>Una Persona</i>)	한 본성으로 혼합 (인성의 흡수)	본성의 혼합, 참 인간 본성의 소멸
루터교 편재설 반론	한 위격 (<i>Una Persona</i>)	인성이 신성의 무한성을 공유함	유한한 인성의 초월화 (<i>Finitum non capax</i>)

IV. 이번 주 암송 요절 및 결단의 기도

[핵심 암송 요절] 골로새서 2:9 & 사도행전 20:28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 2:9)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행 20:28)

[결단의 기도] 한 위격 안에 온전한 신성과 참된 인성을 연합하사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실제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고, 하나님이시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온 우주를 채우시는 광대하신 통치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V. 정답 및 자가 채점표 (Answer Key)

(주의: 스스로 학습을 완료한 후 정답을 대조해 보십시오)

위격 (인격, *persona*)

분열 (나뉘, *indivise*)

신성 (*divinitas*)

인성 (*humanitas*)

속성의 교통 (*Communicatio Idiomatum*)

피 (*sanguis*)

칼빈의 엑스트라 (*Extra Calvinisticum*)

네스토리우스 (Nestorius)

유티케스 (Eutyches)

신성

[제33강 학생용 빈칸교재]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은혜 —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왕, 제사장)

부제: 영원한 진리의 빛, 교회의 불가침적 왕권, 단번의 속죄와 영원한 중보 (Book 2, Ch. 15)

학습자 정보

- **소속 / 구역**:

- **성명**:

- **제출 일자**:

202 년 월 일

- **확인 날인**:

 (인)

I. 핵심 강의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교재는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라틴어 최종결정판) 제2권 제15장(*Ut sciamus quonam fine missus a Patre fuerit Christus...*)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강의를 경청하며 핵심 교리 키워드를 괄호 안에 직접 수기(手記)로 채워 넣으십시오.

II. 핵심 교리 가이드 노트 (Guided Notes 10문항)

1. 칼빈은 그리스도(Christus)라는 칭호가 구약의 기름부음 예식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성부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세 가지 직분, 곧 ① 직분, ② 직분, ③ 직분을 뜻한다고 천명한다. (2.15.1)
2. 구약의 제사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은 모형에 불과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④ 받으셔서 구속 사역의 완전한 실체가 되셨다. (2.15.1)
3.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진 성령의 풍성한 기름부음은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편 133편의 아론의 기름처럼 그분의 몸인 ⑤ 와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흘러내린다. (2.15.1)
4. 그리스도는 영원한 선지자로서 성부의 온전한 뜻을 계시하셨으며, 성자께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모든 구약의 예언과 계시는 온전한 ⑥ 을 맺었으므로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는 필요치 않다. (2.15.2)
5. 칼빈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인간의 전통과 칙령을 덧붙이는 로마 가톨릭의 ⑦ 과 새로운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열광주의자들을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훼손하는 오류로 규탄한다. (2.15.2)
6.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왕국을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번영의 제국으로 오해하였으나, 칼빈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본질적으로 ⑧ 인 통치라고 선언한다. (2.15.3)
7.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상의 유흥과 환난 속에서도 사탄과 사망 권세가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⑨ 인 안전을 보장한다. (2.15.3)
8. 제사장 직분에서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흠 없는 몸을 단번의 ⑩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2.15.6)

9. 칼빈은 매일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반복하여 제사로 바친다는 로마 가톨릭의 [⑪] 제사를 갈보리 십자가의 단번의 영원한 효력을 부정하는 신성모독으로 단호히 배격한다. (2.15.6)

10.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⑫] 기도를 드리시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2.15.6)

Ⅲ. 칼빈 원전 핵심 라틴어 강독 직해 (Primary Source Reading)

[원문 텍스트: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2.15.1]

"Ut sciamus quonam fine missus a Patre fuerit Christus, et quid nobis attulerit, tria potissimum in eo spectanda: officium propheticum, regnum, et sacerdotium... Neque enim frustra unctum vocari auditur: nam unctio Spiritus sancti plenitudinem designat, qua caput nostrum perfusum est, ut inde in membra omnia derivetur."*

[원전 한국어 직역]

"성부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셨는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 안에서 특히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하니 곧 **선지자 직분**, **왕권**,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다... 그분을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헛되지 않으니, 기름부음은 우리 머리이신 그분에게 부어진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며, 이는 그 머리로부터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Ⅳ. 그리스도의 삼중직(Tria Munera) 비교 분석 매트릭스

직분 구분	구약의 예표 및 그림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성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은혜와 적용
선지자 (Propheta)	모세, 엘리야, 이사야 등 선지자들의 부분적 말씀 대언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복음 계시 선포 및 계시의 종결	말씀의 온전한 분별, 영적 지혜, 세상 풍조를 이기는 진리의 확신
왕 (Rex)	다윗, 솔로몬의 지상적 왕권과 다윗 언약	부활 승천하셔서 온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시는 영적·영원한 왕권	환난 중의 불가침적 안전, 사탄의 유혹 극복, 영원한 승리의 소망
제사장 (Sacerdos)	아론과 레위 계열 제사장들의 반복되는 짐승 피 제사	십자가 위에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단번의 속죄와 영원한 중보	죄책감의 완전한 해방, 중보 기도의 확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

Ⅴ. 금주의 핵심 암송 요절 및 묵상 기도문

- 핵심 암송 요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 결단과 결속의 기도:

"영원한 선지자요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공허한 이름으로 주님을 불렀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선지자적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왕권을 신뢰하여 담대히 승리하게 하시며, 날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영원한 중보를 힘입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Ⅶ. 정답 기입 및 확인란 (Answer Key)

(1. 선지자 / 왕 / 제사장 2. 한량없이 3. 교회 4. 마침표(종결) 5. 교황청(교황령) 6. 영적(spiritualis) 7. 영원(불가침적) 8. 화목(대속) 9. 미사 10. 중보(도고))

[제34강 학생용 빈칸교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취 — 사도신경의 구속 단계들

부제: 수난, 십자가의 저주, 영혼의 지옥 고통, 부활과 승천의 영원한 승리 (Book 2, Ch. 16)

학습자 정보

- **소속 / 구역**:

- **성명**:

- **제출 일자**:

202 년 월 일

- **확인 날인**:

 (인)

I. 핵심 강의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교재는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라틴어 최종결정판) 제2권 제16장(*Quomodo Redemptoris partes impleverit Christus...*)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강의를 경청하며 핵심 교리 키워드를 괄호 안에 직접 수기(手記)로 채워 넣으십시오.

II. 핵심 교리 가이드 노트 (Guided Notes 10문항)

1. 칼빈은 구속 사역의 제1 원인이자 시발점이 성부 하나님께 있는 【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선언한다. (2.16.2~3)
2.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잉태되신 순간부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지키신 전 생애에 걸친 【②】 을 통하여 우리의 의를 획득하셨다. (2.16.5)
3. 그리스도께서 강도의 칼이 아니라 세속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은,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으시면서도 우리 죄인들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고 【③】 으로 정죄당하셨음을 증명한다. (2.16.5)
4.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선언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류를 누르고 있던 율법의 【④】 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 (2.16.6)
5.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우리 옛 사람의 정욕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장차 성도들이 들어갈 무덤을 영원한 안식처로 【⑤】 하시기 위함이었다. (2.16.7)
6. 사도신경의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구절에 대해 로마 가톨릭은 지하 세계의 【⑥】 설화를 주장하지만, 칼빈은 이를 성경적 근거가 없는 유치한 신화로 배격한다. (2.16.8~9)
7. 칼빈이 밝힌 '지옥 강하'의 참된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⑦】 의 고통을 친히 영혼 속에서 직접 겪으셨다는 것이다. (2.16.10)
8.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신 절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⑧】 받는 지옥의 심연을 통과하셨음을 웅변한다. (2.16.11)
9.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이자,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⑨】 하심을 확증하는 완전한 보증이다. (2.16.13)

10. 마지막 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낯선 두려운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신 바로 우리의 [10] 이시므로 성도에게 재림은 최고의 위로이다. (2.16.17~18)

Ⅲ. 칼빈 원전 핵심 라틴어 강독 직해 (Primary Source Reading)

****[원문 텍스트: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2.16.10]****

"Nihil actum erat si corporea tantum morte defunctus fuisset Christus: sed operae simul pretium erat ut divinae ultionis severitatem sentiret: quo et irae ipsius intercederet, et satisfaceret iusto iudicio. Unde etiam eum oportuit cum inferorum copiis aeternaeque mortis horrore, quasi consertis manibus, luctari... diros in anima cruciatus damnati ac perdit hominis pertulit."

>

****[원전 한국어 직역]****

"만일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죽음만 당하셨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의 엄중함을 직접 느끼셔야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옥의 세력 및 영원한 죽음의 공포와 직접 맞붙어 싸우셔야 했으며... 저주받고 멸망당한 인간이 겪어야 할 영혼의 끔찍한 고통을 자신의 영혼 속에서 온전히 겪어내셨다."

Ⅳ. 사도신경의 구속 단계별 구원사적 은혜 매트릭스

구속의 단계	역사적 실재 및 성경 본문	신학적 구속 효력	신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은혜
전 생애의 순종	율법 아래 나심 (갈 4:4, 롬 5:19)	능동적·수동적 순종으로 완전한 의 획득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완전한 의의 전가
빌라도의 재판	세 번의 무죄 선언 (눅 23:14)	죄 없는 분이 법정적으로 대속적 정죄 받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완전한 무죄 방면
십자가의 죽음 십	나무에 달린 자 (갈 3:13)	인류의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도말함	영원한 진노의 저주 종결, 아브라함의 복 수여
지옥 강하	영혼의 절규 (마 27:46)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유기 고통 겪으심	지옥의 형벌과 영적 공포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부활과 승천	사흘 만의 부활 (롬 4:25, 행 1:9)	사망 권세 정복, 의롭다 하심, 하나님 우편 통치	새 생명의 삶, 성령의 선물, 영원한 안전
재림의 심판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 (딤후 2:13)	구속의 최종 완성, 악의 영원한 파멸	심판의 두려움 극복, "마라나타"의 영광스러운 소망

Ⅴ. 금주의 핵심 암송 요절 및 묵상 기도문

- 핵심 암송 요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 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 결단과 결속의 기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와 지옥의 영혼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여!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던 사도신경 뒤에 감추어진 주님의 피 묻은 대속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 생애 순종과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의롭다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세상의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Ⅶ. 정답 기입 및 확인란 (Answer Key)

(1. 사랑 2. 순종 3. 법정적(사법적) 4. 저주 5. 성별(sanctificatio) 6. 림보(Limbo) 7. 지옥(영적 진노) 8. 버림(유기) 9. 의롭다(칭의) 10. 구속자(구주))

[제35강 학생용 빈칸교재]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

부제: 은혜와 공로의 완전한 일치, 중세 스콜라주의 사변 분쇄, 제2학기 구속주 하나님 총결산 피날레 (Book 2, Ch. 17)

학습자 정보

- **소속 / 구역**:

- **성명**:

- **제출 일자**:

202 년 월 일

- **확인 날인**:

 (인)

I. 핵심 강의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교재는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라틴어 최종결정판) 제2권 제17장(*Christum vere et proprie promeritum esse nobis gratiam Dei et salutem*)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강의를 경청하며 핵심 교리 키워드를 괄호 안에 직접 수기(手記)로 채워 넣으십시오.

II. 핵심 교리 가이드 노트 (Guided Notes 10문항)

1. 칼빈은 제2권 제17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리고 고유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①] 하셨다고 엄숙하게 선언한다. (2.17.1)
2. 성부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값없는 사랑이 구원의 [②] 원인이며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기초이다. (2.17.1)
3. 로마서 3장 24절과 베드로전서 1장 18~19절에서 성경은 우리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③] 을 받았다고 증언함으로써 대속의 대가를 증명한다. (2.17.2)
4. 성경에 나타난 속전(Pretium)과 화목제물(Hilasterion)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 지불하신 참된 [④] 가 실재함을 확증한다. (2.17.2)
5.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 순종과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⑤] 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 (2.17.3)
6. 피터 롬바르드를 비롯한 중세 스콜라 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자기 [⑥] 을 위해서도 공로를 쌓았는가라는 헛되고 유해한 사변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다. (2.17.6)
7. 칼빈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덧붙여질 영광이 필요 없으셨으며, 그분의 모든 수난과 순종은 오직 [⑦] 을 위한 이타적 대속이었다고 일갈한다. (2.17.6)
8. 인간이 자신의 선행이나 고행으로 구원의 자격을 보태려 하는 펠라기우스주의와 가톨릭의 [⑧] 사상은 갈보리 십자가의 완전성을 모독하는 배교이다. (2.17.5)

9. 칼빈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보화(의, 지혜, 평강, 구속, 영생)가 오직 [⑨] 안에만 충만히 갖추어져 있으므로 밖에서 다른 것을 구하는 자는 어리석다고 경고한다. (2.16.19; 2.17.6)

10.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 구속의 보화는 다음 학기에 배울 [⑩]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적용되고 연합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된다. (3.1.1)

Ⅲ. 칼빈 원전 핵심 라틴어 강독 직해 (Primary Source Reading)

****[원문 텍스트: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2.17.1]****

"Christum vere et proprie promeritum esse nobis gratiam Dei et salutem... Nam inscite opponitur Dei gratia et Christi meritum: neque enim Christus sua sponte se ingerere potuit, nisi a Patre fuisset designatus. Ergo Christi meritum a sola Dei gratia (quae hunc modum nobis salutis acquirendae ordinaverat) pendet: ideoque non minus proprie gratiae quam merito eius nostra salus ascribitur."*

>

****[원전 한국어 직역]****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그리고 고유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획득(공로를 획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서로 대립시키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소치이다. 성부께서 정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의로 끼어드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우리를 위한 구원을 얻는 이러한 방식을 정하신 은혜)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공로에 돌려지는 것 못지않게 고유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진다."

Ⅳ. 제1학기 및 제2학기 35강 구속사적 파노라마 총결산 매트릭스

구분	학기별 대주제 및 핵심 내용	주요 다룬 핵심 교리	칼빈 신학의 궁극적 영적 열매
제1학기 (01~18강)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De Deo Creatore*)	삼위일체, 천지창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인간의 전적 타락과 비참	인간의 교만 완전 파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경외심과 겸비
제2학기 (19~35강)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De Deo Redemptore*)	율법의 세 용도,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참 하나님과 참 인간, 위격적 연합, 삼중직, 사도신경 구속 단계,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의 확신, 십자가 대속의 무한한 안식
제3학기 예고 (36~54강)	성령 하나님과 구원의 적용 (*De modo percipiendae Christi gratiae*)	성령의 내주, 신비적 연합, 믿음과 회개, 이신칭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도, 영원한 예정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 날마다 누리는 성화와 감사의 삶

Ⅴ. 금주의 핵심 암송 요절 및 묵상 기도문

- 핵심 암송 요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 절)

- 결단과 결속의 기도: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원천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1학기 창조의 영광부터 제2학기 십자가 구속의 신비까지 35주의 여정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종과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의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며, 이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다음 학기 배움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의 완전한 완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Ⅵ. 정답 기입 및 확인란 (Answer Key)

(1. 획득(공로) 2. 제일(시발) 3. 대속(속량) 4. 공로(meritum) 5. 전가(imputatio) 6. 자신 7. 우리(pro nobis) 8. 공로주의 9. 그리스도 10. 성령)

제36강: 성령의 은밀한 역사와 그리스도의 은혜 [학생용 빈칸 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1장의 핵심 교리로 [①] (Necessitas Spiritus)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Vinculum Unionis)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Auctor Fidei)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Cum Verbo et Per Verbum)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로마서 8:9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모든 구원의 보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적용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밖에 머물러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3.1.1). ...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비롭고 유기적으로 연합시켜,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띠입니다 (3.1.1).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9)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1. 성령의 | 2. 믿음 | 3. 띠 | 4. 연합 | 5. 믿음의 | 6. 성령의 | 7. 일치 | 8. 의 | 9. 성화 | 10. 오직
하나님께영광

제37장: 참된 믿음의 정의와 특성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2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2장의 핵심 교리로 [①] (Fidei Definitio)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Cognitio et Affectus)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Plerophoria)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히브리서 11:1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ī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여 성령으로 심장에 인쳐진 것입니다 (3.2.7). ... 성경과
교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로마 교회의 암묵적
신앙은 미신에 불과하며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3.2.3~5).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직하나님께영광

제38강: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과 회개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3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3장의 핵심 교리로 [①] (Poenitentiae Definitio)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Mortificatio et Vivificatio)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고린도후서 7:10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ī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회개는 우리 삶을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두려움에서 생겨나며, 육과 옛사람의 죽임과 영의 살림으로 이루어집니다 (3.3.5). ... 회개는 결코 믿음에 앞서 인간이 행하는 공로적 조건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맞본 참된 믿음의 토양에서만 복음적 회개가 싹틔니다 (3.3.1~2).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3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10)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직하나님께영광

제39장: 스콜라 신학의 거짓 회개론 비판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4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4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Potestas Clavium)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시편 32:5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us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슬픔을 쏟아내야만 용서받는다”는 주장은 어떤 인간도 도달할 수 없는 절망의 고문실에 양심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3.4.2~3). ... 사제에게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낱알이 열거해야 한다는 법은 교회의 인위적 횡포이며, 성경은 오직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할 것을 명합니다 (3.4.4~7).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4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 (시편 32:5)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40장: 보속설의 연장: 면죄부와 연옥의 허상 [학생용 빈칸 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5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5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히브리서 9:12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100% 지불된 죄책과 형벌을 인간 사제가 돈을 받고 사면해 줄 수 있다는 가증한 사기극입니다 (3.5.1~2). ...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성인들조차 스스로의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려야 했던 죄인들입니다 (3.5.3).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5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12)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1. 면죄부 | 2. 그리스도 | 3. 분쇄 | 4. 생명 | 5. 그리스도의 | 6. 연옥 | 7. 안식 | 8. 의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41장: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6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6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로마서 12:1-2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us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3.6.2). ...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외적 계명의 준수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온유와 순종의 형상을 삶 속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3.6.3).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6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1-2)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제42장: 그리스도인 삶의 요체: 자기부인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7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7장의 핵심 교리로 [①] (Non Sumus Nostri)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Philautia)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누가복음 9:23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므로 우리의 이성과 뜻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3.7.1). ... 인간의 모든 악의 근원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랑하려는 맹목적 자기애이며, 이는 오직 성령의 검으로 자아를 부인할 때에만 뿌리 뽑힙니다 (3.7.4).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7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23)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1. 소유권의 | 2. 성령 | 3. 독소 | 4. 생명 | 5. 이웃 | 6. 참된 | 7. 의탁 | 8. 진리 | 9. 순종 | 10. 오
직하나님께영광

제43장: 십자가를 지는 삶과 인내의 연단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8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8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Apathia)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로마서 8:17-18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us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지체인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되었습니다 (3.8.1). ... 성도는 평안할 때 자신의 의와 힘을 과신하기 쉬우므로, 하나님은 고난의 막대기로 우리의 헛된 자부심을 깨뜨리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3.8.2~3).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8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17-18)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44강: 영생에 대한 묵상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9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9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고린도후서 4:16-18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us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인간은 현세의 쾌락에 취해 영생을 망각하기 쉬우므로, 하나님은 인생의 덧없음과 고통을 통해 이 세상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일깨우십니다 (3.9.1~2). ... 이 땅의 삶이 비록 헛되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도록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3.9.3).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9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16-18)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제45강: 현세의 물질과 삶을 누리는 청지기 정신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0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10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Redditio Rationis*)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Vocatio*)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고린도전서 7:29-31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하나님은 음식과 옷과 자연을 단지 생명 연장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풍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3.10.2). ... 성경에 없는 엄격한 규례로 성도의 양심을 얽매어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먹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극단적 금욕주의는 비성경적 미신입니다 (3.10.1).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0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 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고린도전서 7:29-31)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창조물의 | 2. 성령 | 3. 배경 | 4. 생명 | 5. 탐욕과 | 6. 최후의 | 7. 거룩성 | 8. 의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46강: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정의와 핵심 [학생용 빈칸 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1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11장의 핵심 교리로 [①] (Iustificatio Forensis)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Imputatio Iustitiae)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Instrumentum Fidei)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로마서 3:23-28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칭의는 죄인이 의로운 성품으로 변하는 내적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의인으로 판결하시는 사법적 선언입니다 (3.11.2). ...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extra nos)에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된 것입니다 (3.11.3).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1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23-28)

•

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칭의의 | 2. 그리스도 | 3. 교리 | 4. 생명 | 5. 오시안더의 | 6. 행위와 | 7. 성격 | 8. 은혜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47장: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 선 인간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2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12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욥기 9:2-3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하나님의 법정은 사람들의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마음의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을 요구합니다 (3.12.1). ... 인간의 가장 빛나는 미덕과 선행조차 하나님의 순결한 거룩함의 빛에 비추면 더러움과 오점으로 가득 찬 찌꺼기일 뿐입니다 (3.12.1, 사 64:6).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2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찌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기 9:2-3)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1. 하나님의 | 2. 성령 | 3. 선고 | 4. 생명 | 5. 욕의 | 6. 시편 | 7. 피난처 | 8. 의 | 9. 성화 | 10. 오
직하나님께영광

제48강: 값없는 칭의 교리의 두 가지 요체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3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13장의 핵심 교리로 [①] 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을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로마서 4:1-5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ī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인간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 외에 그 어떤 공로도 인정하지 않을 때에만
하나님은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3.13.1~2). ...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율법에
기대는 순간 양심은 영원한 고문실에 갇히게 되며, 작은 실수 하나에도 지옥의 공포로
추락합니다 (3.13.3).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3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찌라도 경건치 아니
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1-5)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
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
소서.”

1. 하나님의 | 2. 성령 | 3. 파멸 | 4. 생명 | 5. 참된 | 6. 성경적 | 7. 기초 | 8. 은혜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49강: 칭의의 시작과 성화의 지속적 과정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4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14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Duplex Gratia)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빌립보서 3:7-9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믿음 없이 행하는 중생 이전의 모든 도덕적 행위는 겉보기에 화려할지라도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므로 죄에 불과합니다 (3.14.2~5). ...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부패성이 섞여 있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벽한 잣대 앞에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3.14.9~10).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4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7-9)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오니, 이제

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중생 | 2. 믿음 | 3. 불완전성 | 4. 생명 | 5. 부분적 | 6. 이중 | 7. 회복 | 8. 의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50장: 행위 공로에 대한 자랑의 파멸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5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15장의 핵심 교리로 [①] (Meritum)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누가복음 17:10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us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공로라는 단어는 성경적 용어가 아니며, 인간의 교만한 공로 의식을 자극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가리므로 교회에서 마땅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3.15.2). ...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에도 빛을 지지 않으시며, 인간이 행한 최선의 순종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 불과합니다 (3.15.1, 롬 11:35).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5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찌니라” (누가복음 17:10)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51강: 칭의 교리에 대한 거짓 비방 반박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6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16장의 핵심 교리로 [①] (Christus Non Dividitur)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로마서 6:1-2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us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그리스도를 칭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화의 주님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3.16.1). ... 태양에서 빛과 열이 동시에 나오듯, 칭의와 성화는 서로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 하나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솟아납니다 (3.16.1).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6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1-2)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혜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52강: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7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17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Paterna Indulgentia)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로마서 8:3-4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의 행위 약속은 타락한 인간에게 아무런 생명도 주지 못하고 저주만을 선고합니다 (3.17.1~2). ...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그의 어떤 행위도 열납될 수 없으며, 인격의 칭의가 행위의 열납에 항상 선행합니다 (3.17.5).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7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3-4)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1. 율법의 | 2. 성령 | 3. 선행성 | 4. 생명 | 5. 부정적 | 6. 행위 | 7. 조화 | 8. 의 | 9. 순종 | 10. 오
직하나님께영광

제53장: 성경적 상급 교리의 참된 의미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8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18장의 핵심 교리로 [①] (Merces ex Gratia)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마태복음 20:1-16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i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 획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로 거저 베푸시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3.18.1). ... 성도가 누리는 천국은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상속 유업(hereditas)'이며, 상급은 그 은혜 위에 더해지는 부성적 영광입니다 (3.18.2).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8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천국은 마치 품군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군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 육시와 제 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군으로 쓰는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군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제 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마태복음 20:1-16)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상급의 | 2. 성령 | 3. 관계 | 4. 생명 | 5. 행위 | 6. 포도원 | 7. 순수성 | 8. 의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54장: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19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19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갈라디아서 5:1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us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를 위해 율법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으며,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3.19.2). ... 성도는 노예처럼 채찍이 두려워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기쁨과 자발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3.19.4~5).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9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1)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제55장: 기도: 믿음의 주된 활동과 유익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20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20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Quatuor Regulae Orationis)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Unicus Intercessor)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마태복음 6:9-13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훈련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3.20.3). ... 바른 기도는 (1) 잡념 없는 경건한 두려움, (2) 영적 결핍에 대한 진지한 자각, (3) 자기 의의 완전한 포기과 회개, (4) 응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드러야 합니다 (3.20.4~12).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0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9-13)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

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기도의 | 2. 믿음 | 3. 법칙 | 4. 생명 | 5. 유일한 | 6. 주기도문의 | 7. 인내 | 8. 진리 | 9. 기도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56장: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21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21장의 핵심 교리로 [①] (Definitio Praedestinationis)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Curiositas)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Electio Inconditionata)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에베소서 1:4-6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작정하신 영원한 섭리이며, 어떤 이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어떤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정하셨습니다 (3.21.5). ... 성경이 제시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파헤치려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은 미로 속에 빠져 파멸하는 교만입니다 (3.21.2).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1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4-6)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예정의 | 2. 성령 | 3. 경계 | 4. 생명 | 5. 두려움에 | 6. 선택의 | 7. 위로 | 8. 은혜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57강: 성경적 증거를 통한 선택 교리의 확증 [학생용 빈칸 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22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22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요한복음 6:37-40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 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3.22.1~2). ... 믿음과 선행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열매이자 결과'이며, 따라서 예견된 믿음에 기초한 선택이란 성경을 거꾸로 뒤집는 오류입니다 (3.22.3~5).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2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37-40)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에베소서 | 2. 성령 | 3. 파탄 | 4. 생명 | 5. 야고보와 | 6. 요한복음의 | 7. 유산 | 8. 의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58강: 예정 교리를 공격하는 비방에 대한 반박 [학생용 빈 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23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23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로마서 9:19-21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하나님의 뜻 위에 더 높은 도덕률은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자체가 모든 의와 공의의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3.23.2). ...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시며, 아담과 인류는 외적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패한 의지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고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3.23.8).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3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 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로마서 9:19-21)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오니, 이제 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하나님의 | 2. 성령 | 3. 자발성 | 4. 생명 | 5. 차별 | 6. 토기장이의 | 7. 찬양 | 8. 진리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59장: 효력 있는 부르심과 구원의 견인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24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24장의 핵심 교리로 [①] 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Speculum Electionis)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Perseverantia Sanctorum)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Fides Temporalis)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로마서 8:29-30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외적 복음 전파와 달리, 택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임합니다 (3.24.1~2). ... 내가 택함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는 곧 창세 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3.24.5).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4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29-30)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오니, 이제 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외적 | 2. 그리스도 | 3. 거울 | 4. 생명 | 5. 성도의 | 6. 일시적 | 7. 과정 | 8. 의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60강: 최후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 (제3학기 종강)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3권 제25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3권 제25장의 핵심 교리로 [①] (Resurrectio Carnis)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Visio Dei Beatifica)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고린도전서 15:51-54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의 불멸만을 뜻하지 않으며, 무덤 속에 묻힌 바로 그 육체가 신령하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3.25.7~8). ...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몸 된 지체인 성도들의 부활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필연적 성취입니다 (3.25.3).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5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51-54)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육체 | 2. 성령 | 3. 연합 | 4. 생명 | 5. 이단 | 6. 지복직관 | 7. 총결산 | 8. 의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61강: 성도의 어머니인 참된 교회와 연합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1장의 핵심 교리로 [①] (Ecclesia Mater)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Schisma)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Iudicium Caritatis)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에베소서 4:4-6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지상에 교회를 세우사,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양육으로 돌보시는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4.1.1, 4.1.4). ...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창세 전 택자들의 영적 총수이며, 가시적 교회는 이 땅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과 성례를 공유하는 역사적 공동체입니다 (4.1.7).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4-6)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교회의 | 2. 성령 | 3. 조화 | 4. 말씀 | 5. 분리주의의 | 6. 사랑의 | 7. 샘 | 8. 의 | 9. 성화 | 10.
- 오직하나님께영광

제62장: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분별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2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2장의 핵심 교리로 [①] (Notae Ecclesiae)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Vestigia Ecclesiae)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요한복음 10:27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깨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us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전파되고 들려지며, 그리스도의 제정대로 성례가 집행되는 곳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4.2.1). ... 진리의 말씀이 떠난 곳에서 사도좌의 역사적 계승이나 베드로의 권좌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덤의 유골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4.2.2~3).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기록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2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27)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제63강: 교회의 직분자들: 선출과 사역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3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3장의 핵심 교리로 [①] 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Electio Legitima)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에베소서 4:11-12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i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하나님은 인간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겸손의 순종을 훈련하시고, 지체들 간의 상호 의존과 사랑의 끈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4.3.1). ...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맡은 '목사',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 도덕과 치리를 맡은 '장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집사'로 세워집니다 (4.3.4~9).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3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11-12)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직하나님께영광

제64강: 초대교회의 순결한 직제와 청빈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4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4장의 핵심 교리로 [①] 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베드로전서 5:1-3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us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초대교회의 주교(Episcopus)는 오늘날 교황이나 대주교 같은 군주가 아니라, 여러 장로들 중 질서 유지를 위해 세운 동료 회의의 의장에 불과했습니다 (4.4.2). ... 고대 교회는 헌금을 철저히 4등분하여 주교와 성직자, 가난한 과부와 고아, 교회당 유지, 나그네 구제에만 사용했습니다 (4.4.6).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4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1-3)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제65강: 교황제의 횡포로 인한 교회 정치의 붕괴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5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5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에스겔 34:2-4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깨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말씀을 선포하고 양 떼를 먹이지 않는 목사는 이름만 목사일 뿐, 성경의 기준으로는 이리요 샅꾼에 불과합니다 (4.5.8). ... 교회의 직분을 뇌물이나 친분으로 사고파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 했던 시몬 마구스의 저주를 자초하는 악행입니다 (4.5.2~4).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5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찜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에스겔 34:2-4)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

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설교 | 2. 성령 | 3. 불법성 | 4. 생명 | 5. 검직과 | 6. 교인들의 | 7. 필연성 | 8. 의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66강: 로마 교황의 수위권 주장에 대한 반박 [학생용 빈칸 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6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6장의 핵심 교리로 [①] (Petra est Christus)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마태복음 16:16-18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은 연약하고 넘어지는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으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4.6.3).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몸에 두 머리가 있을 수 없으므로 지상에 '가시적 머리(caput visibile)'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주권을 찬탈하는 괴물과 같습니다 (4.6.9).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6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6-18)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반석의
2. 그리스도
3. 되심
4. 생명
5. 사도권의
6. 열쇠의
7. 허구
8. 의
9. 성화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67장: 로마 교황제의 기원과 역사적 권력 찬탈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7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7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3-4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깨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니케아 공의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의 주교들에게 각자의 관할 구역만을 다스리도록 엄격히 규정했으며, 로마 주교에게 전 세계적 사법권을 결코 부여하지 않았습시다 (4.7.3). ... 로마 주교 그레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보편 주교'라 자칭하자, '누구든지 자신을 보편적 주교라 부르거나 불리기를 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라고 탄핵했습니다 (4.7.4).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7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3-4)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오니, 이제

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초대 | 2. 성령 | 3. 경고 | 4. 생명 | 5. 위조 | 6. 두 | 7. 적그리스도 | 8. 의 | 9. 성화 | 10. 오직
하나님께영광

제68장: 교회의 권세와 순결한 성경 교리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8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8장의 핵심 교리로 [①] (Potestas Serviens)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갈라디아서 1:8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us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교회의 권세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전제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 말씀에 수종드는 종의 권세입니다 (4.8.1). ...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 사역자에게 새로운 교리를 만들 권한을 주신 적이 없으며, 오직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대언의 사명만을 주셨습니다 (4.8.3, 4.8.5).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8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갈라디아서 1:8)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69장: 공의회들의 성경적 권위와 한계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9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9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사도행전 15:28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ī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니케아나 칼케돈 공의회처럼 경건한 교부들이 모여 성경을 통해 이단을 물리친 결정은 교회의 소중한 유산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4.9.1, 4.9.8). ... 공의회 역시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이므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서로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공의회들이 역사에 가득합니다 (4.9.9).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9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15:28)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70장: 법 제정권과 성도 양심의 자유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0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10장의 핵심 교리로 [①] (Solus Deus Dominus Conscientiae)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골로새서 2:20-23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us Deo Gloria)이다.

II.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성도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기록된 말씀에만 복종하며, 어떤 인간이나 교황도 구원에 이르는 법을 제정하여 양심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4.10.1). ... 로마 교회가 사순절 금식이나 사제 독신제를 어기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더 엄히 처벌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폐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섬긴 바리새인의 재현입니다 (4.10.4).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0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데로 부패에 돌아 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골로새서 2:20-23)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양심의 | 2. 성령 | 3. 비판 | 4. 말씀 | 5. 사도 | 6. 교회 | 7. 원리 | 8. 의 | 9. 성화 | 10. 오직하
나님께영광

제71장: 교회의 영적 재판권과 남용 비판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1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11장의 핵심 교리로 [①] 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요한복음 18:36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i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교회의 사법권은 물리적 폭력이나 벌금, 투옥을 수반하지 않으며, 오직 영혼을 권고하고
정책하여 회개케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4.11.1). ... 국가 위정자는 외적
평화와 정의를 위해 세속의 칼을 쓰며, 교회는 성도의 영적 양심과 순결을 위해 영적인
열쇠를 사용하므로 두 권력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4.11.3).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1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36)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직하나님께영광

제72장: 교회의 거룩한 권징: 징계와 출교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2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12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Mitigatio)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마태복음 18:15-17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 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 칼빈 신학의 최고봉이자 우리 삶의 영원한 대주제는 오직 [⑩] (Solī Deo Gloria)이다.

Ⅱ. 칼빈 원전 정본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의 생명이라면, 권징은 지체들을 한 몸으로 결합시키고 방종을 막아주는 교회의 거룩한 신경입니다 (4.12.1). ... 권징은 (1) 불경건한 자들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게 하며, (2) 악한 본보기가 전염되지 않게 하고, (3) 범죄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4.12.5).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2장 발췌

Ⅲ.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Ⅳ.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15-17)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제73강: 성경적 서원과 거짓 수도원 서원 비판 [학생용 빈칸 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3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13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Vocatio Divina)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시편 50:14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서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합법적인 일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인간의 자율적 망상으로 하나님을 빗쟁이로 만드는 서약은 가증한 죄입니다 (4.13.2~3). ...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완전한 서약을 맺었으므로, 그 위에 수도원 서약을 덧붙여 더 높은 계급을 자처하는 것은 세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4.13.6).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3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시편 50:14)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1. 성경적 | 2. 성령 | 3. 충분성 | 4. 생명 | 5. 독신 | 6. 노동 | 7. 소명설 | 8. 진리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74장: 성례의 본질과 은혜의 표징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4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14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Verbum Visibile)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인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Sigillum Fidei)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로마서 4:11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세우신 은혜의 외적 표징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주님을 향한 충성을 서약합니다 (4.14.1). ... 성례는 복음의 약속을 시각화하고 촉각화한 '보이는 말씀'이며, 말씀의 선포가 없는 성례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공허한 마술적 연극에 불과합니다 (4.14.4).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4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11)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1. 성례의 | 2. 믿음 | 3. 말씀 | 4. 말씀 | 5. 언약의 | 6. 성령의 | 7. 통일성 | 8. 의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75장: 세례: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5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15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로마서 6:3-4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되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음을 인치는 표징입니다 (4.15.1, 4.15.5). ... 세례의 효력은 물을 뿌리는 그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일평생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상기시켜 다시 일으키는 평생의 샘입니다 (4.15.3).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5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3-4)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오니, 이제 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세례의
2. 그리스도
3. 유효성
4. 생명
5. 세례
6. 인간적
7. 유효성
8. 의
9. 성화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76장: 유아세례의 성경적 정당성과 언약적 은혜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6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16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창세기 17:7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구약의 할례가 언약 백성의 자녀에게 베풀어졌듯, 동일한 은혜의 언약을 계승한 신약의 세례 역시 신자의 자녀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합니다 (4.16.3~4). ...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과 만민에게 확장되었는데, 만약 자녀들의 세례를 금한다면 신약의 은혜가 구약보다 못하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4.16.6).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6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7)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1. 언약의
2. 성령
3. 확장성
4. 생명
5. 유아의
6. 그리스도의
7. 책임
8. 의
9. 성화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77장: 그리스도의 성찬과 영적 임재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7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17장의 핵심 교리로 [①] 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 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 (Praesentia Spiritualis)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 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 (Sursum Corda)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 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고린도전서 11:23-26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 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 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 성찬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는 참된 영적 양식입니다 (4.17.1). ... 그리스도의 몸은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연합시킵니다 (4.17.10).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7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3-26)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영적 | 2. 그리스도 | 3. 임재 | 4. 연합 | 5. 수루숨 | 6. 화체설과 | 7. 일치 | 8. 의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78강: 교황주의 미사 비판과 단번의 제사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8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18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Sacrificium Eucharisticum)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히브리서 9:25-28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 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으며, 어떠한 추가적 제사도 필요치 않습니다 (4.18.1~3). ... 사제가 제단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희생 제물로 바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극악한 모독입니다 (4.18.5).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8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찌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25-28)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

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십자가 | 2. 그리스도 | 3. 신성모독성 | 4. 생명 | 5. 그리스도의 | 6. 성례와 | 7. 제사 | 8. 의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79장: 잘못 성례로 간주된 5대 의식 비판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19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19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마태복음 28:19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깨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성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셨고 구원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표징에 결합된 것(세례와 성찬)이어야만 합니다 (4.19.1~2). ...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충만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미 세례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은혜를 불완전한 것으로 깎아내리는 불경입니다 (4.19.5).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9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19)
- 결단의 기도: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의로움이나 지혜가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1. 성경적 | 2. 그리스도 | 3. 모독 | 4. 생명 | 5. 고해성사의 | 6. 종부성사의 | 7. 영광 | 8. 의 | 9.
성화 | 10. 오직하나님께영광

제80강: 국가의 통치와 성도의 공적 시민 삶 (80강 대단원 완강) [학생용 빈칸교재]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년 결정판) 제4권 제20장 집중 강독

성도명: ____ / 일시: 202 년 월 일 / 인도자: ____

I. 강의 맥락 잡기: 강의 핵심 괄호 채우기 (Guided Notes)

강의를 들으면서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칼빈은 본 장에서 제4권 제20장의 핵심 교리로 [①]의 불가결성과 거룩한 은혜를 선포한다.
- 원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②]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 칼빈은 성도와 주님을 묶어주는 거룩한 연합의 [③]을 깊이 있게 규명한다.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지혜가 지체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과 [④]이다.
-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깨뜨리고 참된 영적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교의학적 기초는 [⑤]이다.
- 칼빈은 거짓된 사변이나 인본주의적 유혹을 경계하며 성경의 온전한 진리인 [⑥]를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
- 성도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비결은 [⑦] (Deo Magis Quam Hominibus)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 성경 로마서 13:1-4 말씀은 인간의 자고함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⑧]만을 높이도록 증언한다.
- 참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⑨]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

II. 칼빈 원전 정보 깊이 읽기 (Primary Source Reading)

“국가 위정자의 직무는 세속적인 불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를 막고 공공선을 보존하기 위해 세우신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4.20.4). ... 그리스도 안의 영적 자유는 세속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며,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국가의 평화 속에서 경건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4.20.2).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제20장 발췌

III. 신학 사조 비교 분석표 (Comparative Analysis)

비교 항목	세속 인본주의 / 사변	로마 가톨릭 (공로주의)	개혁주의 정통 (칼빈 & 성경)
구원의 주도권	인간의 지성과 결단	은혜 + 인간의 협력 공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전적 단독 은혜
성령의 역사	심리적 위안 및 자존감	성례전을 통한 주입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인치심
구원의 확신	주관적 낙관과 긍정	가변적이며 항상 불안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확신

IV. 이번 주 암송 말씀 및 결단의 기도

- 암송 구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서 13:1-4)

•

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단 정답 박스: 강의 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시민 | 2. 성령 | 3. 조화 | 4. 생명 | 5. 법과 | 6. 성도의 | 7. 거항권 | 8. 의 | 9. 성화 | 10. 오직 하나님께영광